



통일부

# 탈북민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현황과 역할 확대방안 연구

주승현  
전주기전대학교

---

제1장 서론 .....	1
제2장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현황과 활동별 유형 .....	6
제3장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평가와 영향 .....	49
제4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	60
제5장 결론 .....	65
[참고문헌] .....	70

---

## 표 목차

---

<표 1> 연구조사 활동내용 .....	5
<표 2> 탈북민 입국인원 현황(~'16.9월말 입국자기준) .....	7
<표 3> 탈북 유형의 시기구분 .....	9
<표 4> 입국 현황과 여성비율(~'16.9월말 입국자기준) .....	10
<표 5> 연령별 유형(~'16.3월말 입국자기준) .....	10
<표 6> 재북 직업별 유형(~'16.3월말 입국자기준) .....	10
<표 7> 재북 학력별 유형(~'16.3월말 입국자기준) .....	11
<표 8>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의 시기구분 .....	13
<표 9> 반공안보교육시기 탈북민 활동 단체 .....	15
<표 10> 통일안보교육시기 탈북민 활동 단체 .....	17
<표 11> 통일교육시기 탈북민 활동 단체 .....	19
<표 12> 탈북민 참여 수준 .....	20
<표 13> 탈북민 출연 미디어 프로그램 .....	25
<표 14> 탈북민 참여 대표적 통일안보교육 기관 및 단체 .....	34
<표 15> 과정별 통일교육 운영방향과 목표 .....	36
<표 16> 탈북민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현황 .....	37
<표 17>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과 이수자 연찬반 운영 .....	38
<표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통일교육센터 상근직 탈북민 현황	40
<표 19>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탈북민 전문강사 채용안 .....	40
<표 20> 2016년 6월말 통일교육협의회 단체 현황 .....	42
<표 21>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통일 강사로 활동중인 탈북민 현황	43
<표 22> 탈북민 참여 대표적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	48

---

## 요 약 문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단체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소속된 통일교육 단체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탈북민을 통한 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영토적·제도적인 외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사람의 통일을 포함한 내적통일까지도 다루며 통일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상황까지 주안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유용성과 의미를 가진다. 이제 통일교육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남과 북의 체제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서 분단과 안보, 평화와 통일, 상생과 공영, 미래와 번영의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며 특히 통일교육의 내용을 안보 및 체제통일의 측면만 다루지 말고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가치통합을 비롯하여 주민들 간의 민주적·관용적 사고와 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일 후 통합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북한과 통일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외적통일과 내적통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근간으로 이질화된 제도와 의식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최근 남북한의 정치적·군사적인 위기고조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물론 주민간의 왕래도 단절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북한출신의 탈북민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탈북민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될수록 이들의 참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탈북민에 관한 선행연구와 통일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북민의 국내입국 역사와 성격과 특징, 시기별·유형별 변화를 분석한 후 탈북민과 탈북민 단체가 참여한 통일·안보교육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냉전과 탈냉전, 치열한 체제경쟁과 작금의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의 변천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과 그 궤를 함께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은 시기별로 반공안보교육시기(1953-1989), 통일안보교육시기(1990-1999), 통일교육시기(2000-현재) 등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현재에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의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사나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재 탈북민(단체)의 통일교육과 통일관련 활동을 보면 탈북민은 미디어 관련 분야 활동, 통일안보교육 관련 활동, 통일교육 관련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긍정과 부정, 단기와 중기,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인 활용 등 모두를 포함하며 노정하고 있음을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실태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탈북민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통일교육에서 탈북민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우선 현재 한국사회에 입국한 3만 명의 탈북민중 다양한 직업군과 경력을 가진 탈북민이 많아지고 가운데 중간계층과 엘리트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을 통일교육 강사로 활용한다면 통일이후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탈북민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실상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통일교육 활동을 진행하려 하는 탈북민 단체의 기초적인 현황 파악부터 지금까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모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콘텐츠의 제공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통일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단 공연과 토크쇼 형식을 빌려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전개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의 다양한 통일교육과 활동을 장려하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송활동과 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에서 활동하는 탈북민이 잘못된 활동과 접근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자료 및 내용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비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일지라도 왜곡과 편견, 비판이 아닌 통일의 긍정적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탈북민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기관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와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에 탈북민을 활용하고 참여시킨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적지 않으며 균형성, 형평성, 자립성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

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통일교육 과정의 운영 실태는 새로이 점검하고 강사와 현장중심에서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보인다. 몇 가지를 거론하면 통일교육에 참여한 탈북민 강사의 호칭 및 강의파트의 역할문제, 한국출신 강사와의 인원 및 동등성 문제, 재교육 콘텐츠의 문제, 이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 활용 문제, 강사로 책정 문제 등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통일역량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탈북민 인재의 발굴과 양성은 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정부와 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 첫걸음은 많은 탈북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일교육 활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통일은 민족의 소원이자 분단국가의 과제이며 목표이다. 그러나 해방과 분단 71년, 6·25한국전쟁 발발 66년이 지났음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적대적이고도 대립적인 대결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탈냉전 후에도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냉전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한민족, 한영토가 분단되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각인되어 왔다. 언제부터인가 통일의 피로감, 통일의 무용론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절박함을 능가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최근 들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통일준비의 실질적 기반형성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으로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영토적·제도적인 외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사람의 통일을 포함한 내적통일까지도 다루며 통일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상황까지 주안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유용성과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동안 통일시대의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현실은 다소 미흡했다. 특히 분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인들이나 통일국가의 미래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경우 대상에 따른 고려가 없거나 혹은 안보중심적인 교육에 치우쳐 통일기피론 내지 반통일론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며,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부정적·비관적 의식을 내면화해온 것도 사실이다.<sup>1)</sup> 특히 통일문제와 남북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의 길을 발전적으로 개척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통일과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나 민족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이 통일에 있다는 확신을 통일비전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조성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된 분단으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

---

1)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관련 교과가 배정되어 있고 제한적으로나마 통일교육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초·중·고 시기 교육과정은 물론 특화된 통일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로 남아 있다.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 -송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1호(2016), p. 108.

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기본내용은 통일의 당위성, 대한민국 제도의 정당성과 체제의 우월성,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북한의 도발 등에 국한된 채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작금의 통일교육은 평화와 화해를 포함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가치지향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통일교육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남과 북의 체제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서 분단과 안보, 평화와 통일, 상생과 공영, 미래와 번영의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룸으로서 통일에 대한 지지확보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통일교육의 내용을 안보 및 체제통일의 측면만 다루지 말고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가치통합을 비롯하여 주민들 간의 민주적·관용적 사고와 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일 후 통합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통일은 영토적·제도적인 통합을 넘어서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을 포괄하며 통일의 상대인 북한사람들과 상생하고 남북한의 구성원 모두가 통일국가에서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발전이며 창조적 과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관용 및 민주적 토론이 전제되는 구성원간의 통합과 상생 등 화학적 통일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이 어떤 상태로 작동하는 체제인지,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2500만 ‘북한주민’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통일을 회고하고 미래를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면 통일을 향한 여정은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영토적·제도적 통합을 정치체제 통합으로 본다면 사회·문화적 통합은 의식의 통합, 사람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통합은 71년간의 분단으로 강화된 서로 다른 가치관 및 의식구조,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이질화의 차이, 편견, 차별, 불평 등의 구조와 상태를 해소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한의 정치체제 통합뿐만 아니라 더불어 상생을 지향하는 사회문화적인 통합을 형성해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외적통일과 내적통일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근간으로 이질화된 제도와 의식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탈북민<sup>3)</sup>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2) 박순성 외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파주: 한울, 2015, p. 167.

3) 북한을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동안 주로 호명되어온 용어는 ‘귀순자’, ‘월남귀순용사’, ‘망명자’, ‘탈북자’, ‘탈북난민’, ‘탈북주민’, ‘탈

최근 남북한의 정치적·군사적인 위기고조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물론 주민간의 왕래도 단절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북한출신의 탈북민은 3만 명을 넘어섰으며<sup>4)</sup> 이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느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현재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과도기적 수순)이며 특히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이거나 체계적인 통일교육 또한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 상당수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현장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탈북민의 참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통일과정 및 통일교육에서의 탈북민 역할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 발전에 있어서 탈북민의 역할방안과 이들을 통한 새로운 통일교육 콘텐츠에 접근해 보았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과정

탈북민을 통한 혹은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탈북민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이거나 정착에 관한 정책주문에 국한되어 왔다. 탈북민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은 한국사회의 통합이나 통일 후 남북통합의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입국 후 적응과 정착의 문제를 넘어 통일과정과 통일 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탈북민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

북동포’,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자유이주민’, ‘새터민’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는 ‘탈북자’이지만 탈북자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하였고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별칭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으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법률 행정적 표현은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별칭으로 ‘새터민’보다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탈북민으로 쓰기로 한다. 탈북민들 스스로가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분위기도 감안하였다.

4) 2016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통일부는 지난 11월 11일에 탈북민 7명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전체 탈북민 숫자가 3만5명이 됐다고 밝혔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연구와 지원대책의 요구가 간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탈북민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남북한의 첨예한 분단 상황에 따른 안보교육이 우선이었고 통일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이거나 위상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이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정당성 및 체제의 우월성과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실상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교육현장에서 탈북민은 북한의 실상을 전달, 증언하는 초청강사나 북한체제의 전형적인 피해자로만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정착시설인 하나원 교육과정에서도 한국사회의 발전이나 다양한 제도, 그리고 사회적응과 취업, 진로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보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단체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소속된 통일교육 단체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탈북민을 통한 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북민은 주민통합의 사례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남북한의 가교로, 남북통합의 적극적인 주체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다른 제도와 문화, 이질감과 소외감으로 적지 않는 문제점이 표출되며 교육현장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탈북민의 통일교육 목적과 다양한 교육현장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며, 그 결과는 향후 통일교육과정에서 탈북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통일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에는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 탈북민 단체 모두를 포함하며 비공식·비인가 단체의 경우와 개인적·개별적 성격의 통일교육 단체와 강사 등은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탈북민에 관한 선행연구와 통일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북민의 국내입국 역사와 성격과 특징, 시기별·유형별 변화를 분석한 후 탈북민과 탈북민 단체가 참여한 통일·안보교육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의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사나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을 심층인터뷰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통일교육 기관과 단체, 지역의 통일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연구조사를 위한 추가 인터뷰도 진행한다. 이 같은 대면조사 진행과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발전방향과 통일교육에서 탈북민의 역할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에 연구조사를 위한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3명의 인터뷰, 통일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3명의 인터뷰, 그리고 지역통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3명의 인터뷰 등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총 9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와 전화작업,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탈북민 대상의 조사를 통해 통일교육 경험 및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도, 강사활동 경험과 실태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사안 및 관심도 등을 조사했다.

<표 1> 연구조사 활동내용

번	소속	활동분야	이름	성별	연령	정착	인터뷰
1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강사	A	여	30대	5년	대면인터뷰, 이메일 조사
2		사회통일교육 강사	B	남	40대	7년	전화인터뷰, 이메일 조사
3		지역통일교육센터 강사	C	여	40대	7년	대면인터뷰, 전화인터뷰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간사	D	여	30대	9년	대면인터뷰, 전화인터뷰
5		민주평통 강사	E	여	40대	13년	대면인터뷰, 전화인터뷰
6		민주평통 강사	F	여	40	11년	전화인터뷰, 이메일 조사
7	지역통일안보교육	전라지역 강사	G	여	30대	10년	대면인터뷰, 전화인터뷰
8		경기지역 강사	H	남	40대	6년	전화인터뷰, 이메일 조사
9		충청지역 강사	J	여	30대	8년	대면인터뷰, 이메일 조사

※ 인터뷰에 응해준 9명 중 6명이 구술녹취에 응했으며, 다른 3명은 이메일과 전화작업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탈북민의 특성상 실명 대신 모두 알파벳순으로 표기함

기존의 문헌 자료나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통일강의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전체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통일교육이라는 형식을 빌려 안보강의를 진행하는 사회통일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탈북민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안보중심의 교육에 특화되어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의 경우 교육대상별 연령과 집단, 성향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이 일반적인 까닭에 통일교육의 참여를 명료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제기된다.

## 제2장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현황과 활동별 유형

### 제1절 탈북민의 국내유입과 동향

#### 1. 탈북민 입국의 성격과 시기별 변화

한국에서 탈북민은 북한에 주거지를 두고 있다가 탈북해 나온 사람들을 의미한다.<sup>5)</sup> 현재 한국에 입국해 있는 대부분 탈북민들이 1990년 이후부터 국내로 입국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 25년 동안 탈북 및 입국 시기를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먼저 탈북 제1기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탈사회주의 국제정세 속에 구소련과 동유럽에 진출해 있던 북한의 벌목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체제를 이탈한 시기이다. 제2기는 식량난 이후 가장 많은 탈북이 이루어진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로 주로 생계목적의 탈북이 진행되었다. 탈북 제3기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기로 정보접촉이 늘어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 탈북이 주를 이루었다. 탈북 제4기는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서방세계의 탈북자 망명이 공식 허용된 이후 2008년까지 탈북의 국제적 확산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탈북 제5기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탈북이 주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체제의 경제사회 불안정성 증대와 정보유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88호, 2010년 3월 26일 시행)은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의 증가로 경제적 목적의 탈북이 다시 진행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 본다.6)

탈북민의 국내 입국 숫자는 1989년 이전까지 총 607명이었지만 동구권사회주의가 붕괴하는 1990년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입국하였다. 그러다가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이 가속화되던 시점인 1994년에 52명으로 늘어났고 1999년에는 148명이 입국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에 41명이던 것이 2000년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1382명이, 2006년에 2028명의 탈북민이 입국하여 2000명대를 돌파하였다. 이후 2009년 2914명으로 2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했던 탈북민은 2012년에 들어와 7년 만에 1000명대로 낮아져 1502명에 그쳤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 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북-중국 경지역의 경계가 보다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후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감소해 온 탈북민의 수는 2016년에 들어와 증가세로 돌아섰고 마침내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편 2016년 11월까지 국내 입국한 누적 탈북민은 남성 8716명, 여성 2만1114명 등 2만5명이다.7)

<표 2> 탈북민 입국인원 현황(∼'16.9월말 입국자기준)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9 (잠정)	합계
남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213	8,716
여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823	21,114
합계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036	29,830
여성 비율	67%	69%	75%	78%	78%	77%	75%	71%	73%	76%	78%	80%	80%	71%

자료 : 통일부(2016)

## 2. 탈북민 입국의 특성과 유형별 변화

북한에 주거지를 두고 있다가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체류하거나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적 경제활동을 위한 탈북이나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탈북, 국내외 연고 가족의 도움 등 탈북 발생의 원인이 점차 다양해지

6) 박명규 외 공저,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p. 41 참조.

7) 통일부, 2016 「통계자료」.

면서 그 유형과 특성은 매우 복잡적이다.

먼저 과거 냉전시대에는 정치적 요인들이 탈북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탈냉전시대에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탈북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의 탈북동기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반인에서 고위층, 핵심계층에서 적대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원화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의 입국시기와 대입하여 탈북 유형을 다시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냉전시기이다. ‘정치적 귀순’자가 많았던 이 시기는 휴전선을 통해 귀순한 군인이나 전향한 남과간첩, 해외공관에서 탈출한 북한외교관과 주재원들이 다수였고 일반주민들은 해상을 통한 극소수의 탈북을 제외하고는 한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체제 대결적이고 반공적 이념이 강한 시기여서 1980년대까지 ‘정치적 귀순자’들은 귀순용사로 대우받고 반공교육의 일선에 섰다.

두 번째 시기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로 명명하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1990년 중후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생존형 탈북’인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로 가거나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급증한 시기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어려웠던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숨어든 탈북민은 많게는 30만까지 추산되기도 했다.

세 번째 시기는 한국으로 입국한 생존형 탈북민들이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들을 입국시키는 ‘연계형 탈북’시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치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가족들을 탈북 시키는 일이 많아지면서 단독탈북이 가족동반 탈북으로 바뀌게 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시기는 보dana은 삶을 찾아 목표를 세우고 탈북 하는 ‘이민형 탈북’시기로 볼 수 있다. 북한내부에 외부정보 유입이 증가하고 외부정보를 통해 바깥세상을 동경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북한 밖으로의 탈북현상이 일반주민에서 엘리트 계층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게 증가한 시기이다.<sup>8)</sup> 중국에서 공부하던 북한유

8) 이민형 탈북이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거주자 자신의 소득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1년 이전에는 19%였지만 2014년 이후 조사에서는 55.9%로 늘었다. 북한 거주 당시 생활수준을 ‘중·상급’이라고 답한 비율도 2001년 이전에는 23.5%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 조사에서는 66.8%였다. 『중앙일보』, 2016. 9. 8. 기사참조.

학생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거나,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는 여성이 포함된 다양각색의 ‘이민형 탈북’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4월에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5월에는 3명의 여종업원이 집단탈북 하였는데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동경한 것이 이들의 탈북배경으로 알려졌다.<sup>9)</sup>

<표 3> 탈북 유형의 시기구분

순	시 기	유 형	동 기	특 징
1	체제경쟁시기 (1953-1989)	정치적 탈북	정치·이념, 기타	군인, 외교관 등 소수그룹
2	북한의 고난의 시기 (1990-1999)	생존형 탈북	경제난, 기타	여성 등 다수의 취약계층 포함/ 국경지역 거주자
3	김정일정권 시기 (2000-2011)	연계형 탈북	가족·친척 도움	단독 탈북에서 가족 동반 탈북
4	김정은정권 출범 시기 (2011-현재)	이민형 탈북	보다 나은 삶	탈북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입국
		복합적 탈북	다양한 요인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적 포함

특히 현재 ‘이민형 탈북’과 함께 ‘복합적 탈북’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단순히 경제적 탈북이나 이민·이주형 탈북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규정 짓기 힘들 정도로 탈북의 성격과 유형, 직업군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경제적 상황이나 외부정보를 통해 탈북을 결심하는 주민들이 있는가하면 군인과 외교관 출신들의 탈북과 무역일군과 해외 근무자들에 이르기까지 탈북의 성격과 유형뿐만 아니라 직업군도 매우 다원화되고 복합적이어서 ‘떡볶이형 탈북’,

9)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와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의 이탈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홍콩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세의 북한 수학영재가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요청했고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노동당위원장의 외화관리를 담당하던 장성급 인사가 거액의 달러를 챙겨 잠적했다는 뉴스도 보도됐다. 대남공작 업무를 맡았던 경찰총국 소속의 영관급 군관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의 관계당국은 사실상 시인하는 입장을 취했고 8월에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부인과 자녀를 동반해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 각종 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됐다. 또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해온 북한 외화벌이 기관 간부도 비슷한 시기 부인과 함께 망명길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련의 탈북사건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일반주민부터 엘리트 계층에까지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탈북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일보』, 2016. 8. 16일 참조, 『연합뉴스』, 2016. 8. 10일 참조.

‘유학형 탈북’이라는 새로운 탈북 용어<sup>10)</sup>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에서 2002년부터는 남성보다 여성의 입국이 급증하였으며 2016년 3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1%이다.

<표 4> 입국 현황과 여성비율(∼'16.9월말 입국자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6.9 (잠정)	합계
남	831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213	8,716
여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6	2,258	1,813	1,909	823	21,114
합계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4	2,929	2,402	2,706	1,036	29,830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80%	71%

자료 : 통일부(2016)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27%, 30대가 31%, 40대가 16%로 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연령별 유형(∼'16.3월말 입국자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누계(명)	988	2,793	6,541	7,359	3,898	1,209	1,091	23,879
비율(%)	4	12	27	31	16	5	5	100

자료 : 통일부(2016)

재북시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직 부양이 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자 38%, 봉사분야 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재북 직업별 유형(∼'16.3월말 입국자기준)

구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등	계
누계(명)	12,264	9,041	393	483	195	874	629	23,879
비율(%)	50	38	2	2	1	4	3	100

자료 : 통일부(2016)

10) 최근 들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탈북 사례가 나오며 언론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8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탈북을 두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하는 이른바 ‘이민형 탈북’으로, 자녀만 남한으로 보내는 탈북을 이른바 ‘유학형 탈북’으로, 장마당 경제 후 경제문제로 넘어오는 탈북을 ‘떡튀형 탈북’으로 정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재북시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이 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학 9%, 대학이상이 8%, 인민학교 6%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재북 학력별 유형(∼'16.3월말 입국자기준)

구 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명)	643	216	1,556	16,773	2,198	1,689	804	23,879
비율(%)	3	1	6	70	9	8	3	100

자료 : 통일부(2016)

### 3. 국내 입국 후 정착의 과정과 현재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경제활동과 평균소득이 한국출신의 국민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고 연고가 없는 한국사회에서의 외로움, 경쟁을 가치로 삼는 체제에 대한 두려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일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여러 측면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은 이들의 지역사회 편입을 힘들게 하고 있다.<sup>11)</sup> 특히 탈북민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착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sup>12)</sup>

탈북민 초기에는 ‘월남귀순자(1962)’, ‘월남귀순용사(1978)’, ‘북한귀순동포(1993)’로 불리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인식과 대우가 수반되었다. 1962년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1978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많은 수혜와 혜택을 지원받게 되었다. 후한 정착금과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보장받으며 초기 탈북민들은 1990년대 전후로 남북한 간 체제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탈북자’라는 용어로 불렸고 1993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제정 후 생활보호대상자로 하향 조정되어 생계지원을 받고 생활해야 했다. 이때 주무부처도 보훈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됐다.

1990년대의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입국한 탈북민의 실업과 빈곤, 사회 부적응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국내입국 탈북민

1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279.

12)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파주: 양서원, 2007, p. 293.

수가 1만명에 이르자 우리정부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위해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다시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바뀌었다. 탈북민에 대한 다양한 호칭의 변화만큼이나 탈북민의 지원과 관리체계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고 국내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반영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그동안의 일방적 지원에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자립 및 자활 지원정책을 추진했고 ‘하나원(탈북민 정착지원시설)’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지역응답센터(하나센터)’ 운영,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민의 정착은 취업과 경제적 자립, 교육과 건강, 직장주변, 언어와 문화,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 제2절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sup>13)</sup>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의 변천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적인 안보·통일교육의 목표 및 그 지배적 가치와 궤를 함께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의 통일교육은 시기별로 반공안보교육시기(1953-1989), 통일안보교육시기(1990-1999), 통일교육시기(2000-현재) 등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sup>14)</sup> 보다 세분해서 살펴

13) 통일교육의 변천을 반공교육기, 승공통일교육기, 안보교육기, 통일안보교육기, 통일교육기 등 5시기로 나누어 접근한 시각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기 반공교육기는 미군정기로부터 제2공화국시기(1945~1963)까지로, 이 시기의 교육적 주안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반공정신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제2기 승공통일교육기로 제3~제4공화국시기(1963~1980)이며 이 시기의 교육양상은 반공교육 강화로, 이 시기 통일교육의 목표와 실체는 승공통일과 국가안보, 그리고 민족주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제3기 안보교육기는 제5공화국시기(1981~1987)로서, 이 시기에는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산주의를 사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모아졌다. 제4기 통일안보교육기는 제6공화국시기(1987~1992)이며 이 시기의 교육은 시민교육의 강화와 민족동일성회복을 강조되었다. 제5기는 통일교육기인데 정치적으로는 김영삼정부(1993년)로부터 현재까지이고, 이 시기에 비로소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통일교육이 통일정책이나 북한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시민교육으로 확대·개편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4) 통일교육의 변천과 시기구분은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여러 논의가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탈북민의 입국과 특성,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의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반공교육이 통일교육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 각각이지만 반공교육이 안보교육으로, 그리고 다시 통일교육으로 변천해 온 과정을 토대로 반공교육도 통일교육에 포함한다.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전쟁이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냉전구도 속에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1989년 이전까지를 한국의 통일교육은 반공안보교육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탈북민은 ‘월남귀순자’ 혹은 ‘귀순용사’로 불리며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었던 반공, 승공, 멸공의 도구적·선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한국사회에 북한에 대한 적대성·배타성·타자성을 강화시켜 왔다.

두 번째, 1990년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전된 후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부각되면서 통일교육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한편 안보교육 또한 중시되는 통일안보교육시기를 거치게 된다. 냉전이 붕괴되고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시기에 탈북민의 명칭도 ‘귀순동포’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고 급기야 생활보호자로 지원과 위상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남북의 대치상황에 필요한 안보교육의 현장에서 상징적 존재로 포섭되어 왔다.

세 번째,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통일교육시기에 접어들었고 현재까지 약 2천여 곳의 단체 및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며 수많은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여 단체 및 기관에서 진행하는 통일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탈북민은 늘어났다.

<표 8>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의 시기구분

순	시 기	주 체	근 거	명 칭
1	반공안보교육시기 (1953-1989)	정부주도와 민간기관	헌법 제3조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2	통일안보교육시기 (1990-1999)	정부주도와 민간기관	헌법 제3조 헌법 제4조 통일교육지원법	귀순동포(탈북자), 북한이탈주민
3	통일교육시기 (2000-현재)	정부 및 민간기관	헌법 제4조 통일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민(탈북자)

### 1. 반공안보교육시기(1953-1989)

한국전쟁 후 통일교육은 오랫동안 반공과 반북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반공, 승공, 멸공, 반공안보교육 등의 혼용된 명칭으로 쓰였다. 반공안보교육시기는 국제적으로는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대표되는 서방진영과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냉전시대이며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로 통일을 추구하는 상호 적대적이고도 대결적인 시대에 해당한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승만 정부는 철저한 반공주의와 남한정부만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안 195(III)를 내세워 북한지역을 공산세력이 불법으로 점령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무력통일을 주장하며 국민동원과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반공정치의 집중적 표현과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을 앞세웠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노태우 정부 출범(1988년) 이전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sup>15)</sup>

따라서 반공안보교육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공격하면서 한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이를 내면화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따라서 이시기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귀순자)은 북한의 호전성을 고발하고 자유세계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반공교육의 일선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sup>16)</sup>

1989년 이전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는 607명에 달했고 주로 휴전선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이나 남파간첩 출신의 전향자, 북한의 해외공관에서 탈출한 외교관과 주재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도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등 제3국을 통한 탈북루트가 없기에 일반주민들의 탈출은 쉽지 않는 구조였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치적·안보적 대우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었고 남북한이 적대와 대립을 강화하면 할수록 이들의 존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1962년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1978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많은 수혜와 혜택을 지원받게 되었다. 후한 정착금과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보장받으며 반공강연과 방송활동 등을 통해 반공안보교육에 동원됐다.

---

15) 박순성 외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파주: 한울, 2015, p. 27.

16) 1979년, 25세 나이로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안찬일(62·정치학박사)은 당시 정부는 자신을 비롯한 귀순자들에게 30평대 아파트 1채(당시 평균 매매가 3천만 원 정도)와 정착금으로는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액수의 돈과 선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시켜주었다고 회고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환영대회’에 참석해야 하였는데 각 도, 광역시까지 수많은 자치단체를 순회해야 했다고 말했다. 통상 한 곳에 가면 보통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살 수 있는 돈과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면서 오죽했으면 당시 남한 처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 3~4번째로 귀순용사를 선호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귀순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통일신문』, 2016. 4. 22. 기사참조.

이들의 반공안보교육은 정세에 대비하거나 정부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신변담당 형사나 정보기관의 실무자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를 받는 형식이 대부분이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북한체제 실상에 대한 비판과 남한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자유세계의 우월성이라는 흑백논리에 대부분 치우쳐져 진행됐다.<sup>17)</sup>

많지 않는 숫자임에도 1980년대에 들어와 탈북민(귀순자)들은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친목 도모와 반공안보교육 확대 및 수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때 만들어진 탈북민 단체의 목적 및 활동의 중심은 안보 강연이었다. 1980년 10월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송의동지회’가 만들어졌고 1998년까지 탈북민들은 개별적인 동의여부도 없이 이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었다. 1980년대 ‘통일연구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 또한 친목도모와 안보강연이 활동목표였다. 1989년 9월에는 탈북민 단체의 최초의 사단법인으로 알려진 ‘기독인 월남귀순용사 선교회’(이후 겨레선교회로 개칭)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만들어진 3개의 단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탈북민 전체를 대변하거나 주도적으로 반공안보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안보교육은 점차 반공, 멸공, 승공의 교육에서 안보, 이념, 체제우월성의 교육으로 색채를 변화시켜왔다.

<표 9> 반공안보교육시기 탈북민 활동 단체

순	단체명	설립시기	목적과 활동
1	(사)송의동지회	1980년	강연지원, 친목도모
2	통일연구회	1980년	강연지원, 정착지원
3	(사)기독인월남귀순용사 선교회	1989년	강연활동, 북한선교

## 2. 통일안보교육시기(1990-1999)

통일안보교육의 시기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미노 붕괴에 따른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찾아왔다. 안보

17) 부분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에 제직 중 판문점을 통해 1967년 3월 귀순한 ‘반공영웅’ 이수근은 귀순 2년 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사형됐다. 2008년 12월 대법원은 이수근이 위장간첩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40년 만에 내렸는데 귀순당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해야 했던 반공강연과 정부의 지나친 감시로 한국을 출국하게 된 것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와 통일을 동시에 내건 통일안보교육 시기에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1)과 북한의 1차 핵문제(1993)와 김일성 사망(1994), 그리고 비무장지대교전(1997), 제1차 서해 교전(1999) 등 화해와 긴장이 교차했고 통일교육은 이러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안보와 통일을 함께 강조해왔다. 한편으로는 안보와 통일을 각각 주장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표현 화되면서 남남갈등과 함께 통일안보교육의 상호 모순도 지적되었다. 통일지향의 담론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내부에서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일어난 것은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sup>18)</sup> 그럼에도 이 시기는 반공교육의 일변도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제5차 교육과정(1987-1995)의 개편<sup>19)</sup>에서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내용도 반공·반북의 논리에서 분단의 고통을 부각시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지향의 교육으로 통일문제의 내용과 비중을 보장했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기존의 북한체제의 비판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도 살리면서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면서도 안보위협 대상임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1999년 2월에는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일교육지원법”이 처음 제정됐다.

이 시기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1990년대 초 무렵 한해 10명 내외로 입국하던 탈북민의 숫자는 1994년에 52명으로 늘어났고 5년만인 1999년에는 148명이 입국하여 국내입국 전체 탈북민의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탈북민이 대폭 증가하자 경기도 안성시에 탈북민 정착시설을 설치하였고 1999년 7월 ‘하나원’은 문을 열었다. 탈북민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앞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때 경찰청의 지원을 받는 ‘(사)승의동지회’와 같이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지원으로 ‘탈북자동지회’가 출범하였으며 1999년 2월 사단법인으로 통일부에 등록했다. 국정원의 예산을 받고 2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두고 있는 ‘(사)탈북자

18) 박순성 외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파주: 한울, 2015, p. 14.

19) 분단 이후 통일교육은 냉전과 탈냉전, 남북한의 체제경쟁 변화에 따라 크게 반공교육시기와 통일안보교육시기, 통일교육시기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과정도 바뀌었다. 먼저 반공교육은 1차와 2차 교육과정(1954년 ~1963년)에, 멸공·승공 교육은 3차 ~ 4차 교육과정(1973년~1981년)에, 통일안보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1987년~1995), 이후 6차와 7차의 교육과정에는 통일교육 강화가 반영되었다.

동지회’는 탈북민의 친목 도모와 국내 정착지원, 그리고 강연지원활동 등을 전개했으나 현재까지도 탈북민 사회와 단체에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안보교육의 시기 통일교육의 요구가 증대되고 탈북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긴 했으나 통일교육의 전문성이나 역량 등으로 탈북민의 대부분 교육은 안보교육에 치중되었고 일회적이며 단기적 교육에 참여했다.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대치상황과 안보현실이 안보교육의 현장에서 탈북민을 상징적 존재로만 포섭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최대의 민족적 과업 또는 정치적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체제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일체화시키는 정치적 기제<sup>20)</sup>로 탈북민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활용됐다. 그리고 이시기 통일교육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초청되었어도 ‘귀순자와의 대화’와 같은 북한실상의 증언과 질의응답에 이들의 역할이 한정되었다.

<표 10> 통일안보교육시기 탈북민 활동 단체

단체명	설립시기	목적과 활동
(사)송의동지회	1980년	강연지원, 친목도모
(사)탈북자동지회	1999년	강연지원 및 활동, 친목도모, 사회정착

### 3. 통일교육시기(2000-현재)

통일교육시기는 2000년에 있었던 남북한의 최초의 정상회담과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진전으로 전면화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 통일지향의 담론들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와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였던 냉전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우리와 공존 할 협력대상으로 전환되었다.<sup>21)</sup>

통일안보교육 시기에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적대적 형제)이나 분단의 고통, 민족의 동질성회복 등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면 통일교육시기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대북관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나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과 같은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내용과 비중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통일문제는 북한체제라는 존재를

20) 박순성 외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과주: 한울, 2015, p. 37.

21)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3.

전제하고 있기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해 오느냐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sup>22)</sup> 물론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라서도 평화 및 화해협력이나 안보 및 상호주의와 같은 우선순위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시기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2000, 2007) 개최되기도 했지만 북한의 5차례의 핵실험(2006-10, 2009-5, 2013-2, 2016-1, 2016-9)이나 총 세 차례(1999, 2002, 2009)의 주요한 해상교전과 천안함(2010), 연평도사건(2010)도 있었다. 통일교육시기의 전기가 화해협력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같은 교육이 특징이라면 후기는 통일의 필요성을 유지하면서 안보중심의 실용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정권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기초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인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고 살아야 할 동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에서 큰 전환점은 2000년 이후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탈북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의 특성과 유형 또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2년 한해에 1142명의 탈북민이 입국하였다면 2006년에는 2028명이, 2009년에는 2914명이 한해에 입국하였고 올해까지 총 입국자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탈북동기도 정치적 탈북에서 경제적 탈북으로, 연계형 탈북에서 이민형 탈북으로 변화해왔고 다양한 연령, 직업, 지위, 지역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곳에서의 정착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많아지면서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체들의 활동목표에 통일교육 활동을 명시한 탈북민 단체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민과 탈북민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이 활기를 띠고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정부기관 혹은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에 일시적·한시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민 중심의 단체나 정부지원의 민간단체를 막론하더라도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북민은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 북한실상 파트나 개인의 경험으로 특화시킨 안보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도 존재한다.

---

22)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p. 211.

<표 11> 통일교육시기 탈북민 활동 단체

번	단체명	설립시기	목적과 활동
1	(사)북한민주화위원회	2007	통일교육 및 리더십아카데미 활동, 기타: 북한민주화 활동 및 탈북민 정착지원 등
2	(사)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사람들	2006	인재발굴과 교육활동, 기타: 북한자료 분석 및 교육지원 등
3	(사)세계북한연구센터	2010	통일지도자 아카데미활동, 기타: 북한정세 분석 및 연구조사활동 등
4	(사)NK지식인연대	2008	북한실상 교육, 기타: 북한정보 분석 및 관련 세미나 등
5	(사)북한전략센터	2007	통일안보교육(북한실상교육), 기타: 북한정보 분석 및 학술연구활동 등
6	탈북민단체총연합	2008	안보통일강연, 기타: 정착지원과 권익옹호 활동 등
7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2007	북한실상 및 통일·인권교육, 기타: 세미나 및 캠페인 활동 등
8	북한인민해방전선	2010	안보교육, 북한민주화 활동 및 북한군 연구 등
9	(사)하나여성회	2010	여성통일리더 양성, 기타: 정착지원 등
10	북한민주화학생포럼	2011	남북청년 통일 및 리더십교육, 기타: 세미나 및 캠페인 활동 등
11	통일비전연구회	2010	통일교육 및 연구(학술활동) 등
12	겨레얼통일연대	2011	안보강의 활동, 기타: 친목, 봉사, 세미나 등
13	통일사랑교육협의회	2010	통일교육 및 정착지원 등
14	북한자유연맹	2010	통일교육, 탈북지역량 강화 등
15	평화통일탈북민연합회	2001	안보강의 지원, 기타: 친목도모, 정착지원 등
16	뉴코리아여성연합	2011	안보강의 활동, 기타: 친목도모, 인권개선 활동 등

### 제3절 탈북민의 통일교육 현황과 유형

대한민국은 민주화이후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원칙을 규정했다.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였으며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

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66조 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분단 현실의 인정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원칙은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모습으로 1989년에 제시되었고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통일정책이 체계화·구체화되어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 후반 이래 각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추진과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지어 대립하기까지 했다.<sup>23)</sup>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대결적인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상과 현실, 안보와 통일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통일교육은 관련자들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기도 했다.<sup>24)</sup>

통일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의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통일교육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 균형적 북한관을 정립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다.

탈북민은 현재 통일과 관련하여 크게 ①미디어 활동, ②통일안보교육, ③통일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통일 등의 담론을 주조하고 논의를 생산하는 활동과 교육현장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탈북민 참여 수준

번	통일관련 교육	지향성 / 강조	참여 수준
1	안보교육	안보 우선 지향: 안보와 체제 우위 강조	적극적인 참여
2	통일안보교육	안보 → 통일지향: 안보 강조 후 통일 추구	적극적인 참여
3	통일교육	통일지향: 통일 중심, 안보(하위영역)강조	적극적인 참여
4	북한·통일 관련 미디어 활동	통일·안보 모두 지향: 실상·생활·문화 중심	유동적인 참여

23) 박순성 외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파주: 한울, 2015, p. 48.

24)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p. 211.

## 1. 통일관련 미디어 출연과 활동

지금까지 방송이나 영화, 언론에서의 탈북민은 남북한 체제경쟁 시대의 콘텐츠 전략안에서 한국체제 우월성의 증거로, 북한체제 실상의 재연자로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의 통일논의와 통일 분위기와 맞물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중심으로 탈북민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특히 ‘통일’이라는 담론을 내세운 오락프로그램(토크쇼 포함)의 편성수를 늘이고 있다. 물론 보수적 성향의 종편채널 말고도 지상파나 여러 종교채널 또한 탈북민을 초대하여 북한이야기와 한국정착 생활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전망까지도 다루기도 하지만 역시 리얼리티쇼의 형식을 빌려 진행하는 종편의 탈북민 오락프로그램은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종편의 TV조선과 채널A, 그리고 MBN 등에서 탈북민을 통한 ‘통일’ 논의를 다룸으로서 북한실상에 접근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과거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며 시청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 집중시키는 효과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형화나 고정된 탈북민의 미디어 이미지(수동적이고 피해자)는 오락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스튜디오 초청 대담자 혹은 북한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는 주인공으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송의 기획의도가 탈북민에 대한 시청자나 대중의 거리감을 줄이고 관심과 시청률을 높이려는 의도일지라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변화하고 있는 탈북민 이미지에 대한 흐름에 개입하여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수익성을 창출해 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종편들이 탈북민을 대거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통일흐름에 부합하는 한편, 기존의 지상파 방송 등 미디어들이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북한 관련 정보 프로그램을 오히려 비즈니스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이러한 미디어들의 편성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사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들에 탈북민을 집중 출연시키고 있는 점이다.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미개척 영역으로 분류가 된 북한정보 시장과 보수적 성향의 시청자의 확보를 탈북민이나 탈북민 출신 전문가를 내세워 북한내부 상황을 분석하는 등 기자 중심에서 대담이나 토론 중심으로 시사 포맷을 바꾸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탈북민에게도 적지 않고 비중 있는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5) 김명준·주승현, “종편채널의 비즈니스 전략과 북한정보 시장의 공략: ‘탈북민’활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6권 2호(2016), p. 42.

특히 종편은 지상파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포맷을 개발하는 동시에 경쟁 방송사의 성공적 프로그램을 모방하기도 하는데<sup>26)</sup> 대표적인 경우가 탈북민, 특히 탈북여성들을 내세워 진행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종편의 TV조선은 <모란봉 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이하: 남남북녀)를, 채널A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과 <잘 살아보세>라는 토크쇼와 오락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종영이 되었지만 MBN 역시 탈북민이 출연하는 <한솔밥>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동안 제작, 방송한바 있다.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종편’, ‘탈북민’, ‘통일’, 그리고 ‘오락’ 등의 요소들은 종편과 탈북민의 만남과 함께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소식을 듣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기할 것은 정부와 사회의 통일논의를 부활시켰다는 것이다.<sup>27)</sup> 때문에 단순히 탈북민 출연이 갖는 의미 외에도 비즈니스 적이면서도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기제로써 그 이상의 것들이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출연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비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수언론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탈북민의 이미지를 바꾼다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오락거리’로 만들고 출연하는 탈북 여성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특히 탈북민의 이야기를 ‘통일논의’의 자원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며<sup>28)</sup> 보수성향의 중장년층에 흡수통일론의 화두를 확대하고 있는 기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출연자의 증언이나 북한관련 정보는 부정적 내용과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탈북민 이미지나 통일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26) 오원환, “탈북자 정체성의 정치학 -종편에서의 ‘탈북미녀’의 등장과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0권 3호(2016), p. 6.

27) 방희경·이경미, “종편채널의 북한이미지 생산방식: ‘일상’으로의 전환, 이념적 정향의 고수,” 『한국언론학회』, 제60권 2호(2016), p. 339.

28) 방희경·이경미, “종편채널의 북한이미지 생산방식: ‘일상’으로의 전환, 이념적 정향의 고수,” 『한국언론학회』, 제60권 2호(2016), pp. 340-341.

과거에는 ‘이만갑(이하: 이제만나러갑니다)’에서 작가들이나 관계자들이 사정을 하면서 출연요청이 해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이나 탈북자 이미지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탈북민)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때는 나한테도 하루에 몇 번이나 출연 요청 전화가 와서 크게 화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만갑’이나 ‘모클(이하: 모란봉클럽)’에 한번 출연해보려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 작가들이 줄을 쭉 세우고 사람을 고른대요. 웬만큼 재능이나 사연이나 인물이 안 되면 이제는 티비 출연하기도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도 저는 ‘이만갑’에 나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요즘 주변에서 탈북자들이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엄청 욕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는 탈북자들은 열에 아홉은 ‘이만갑’을 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10대에 탈출한 친구들이 북한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낯색 하나 까딱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탈북자들은 척 보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금방 알거든요. 북한이 고향인데 왜 북한을 헐뜯는지 모르겠어요. 체제는 나쁘지만 좋은 점도 많거든요. 한국사람들이 ‘이만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진짜냐고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같은 탈북자들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만갑’ 같은 것을 보고 남북한이 너무도 달라서 통일이 어렵겠다고 말할 때는 방송사에 항의하고 싶기도 해요. 주변에 이는 동생은 몇 번 전화로 항의했는데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을 말해도 모자랄 판에 왜 거짓말로 도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이지만 출신성분과 출신지역에 따른 신분과 경험도 천차만별이며 탈북 유형도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전체의 경험자로, 내밀한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증언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리고 종종 거짓증언과 과장이 도마에 오르고 때로 밝혀지면서 탈북민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존재로 각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과거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한 탈북민을 통한 ‘5·18광주항쟁의 북한군 개입설’이나 북한 김정은에 의해 고모인 김경희가 독살되었다는 등 근거와 사실 확인이 없는 발언, 허위경력이 인정된 탈북민 출연의 편파방송 등 여러 차례의 물의가 있었지만 탈북민 증언에 대한 신뢰나 북한 보도의 편향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행과 거듭되는 부작용은 자본주의 한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탈북민의 미숙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종편을 비롯한 미디어들이 이를 활용하며 이익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아무런 연고가

없고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민 일수록 방송을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유혹은 강할 수밖에 없다.<sup>29)</sup>

#### 탈북민 \_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사

종편에서 하는 ‘모란봉클럽’에 출연한적 있어요. 저는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경찰청 안보강사로 등록되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강의 담당자들이 어느 TV에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왜 TV에 나온 것이 중요한지를 따져 묻자 강의를 듣는 청중들이 TV에 나온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섭외하는 쪽에서 TV에 나온 탈북자인지, TV에 나왔으면 어느 채널에 나왔는지 꼬치꼬치 물어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는 언니의 소개로 ‘모란봉클럽’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TV에 나오고 나니까 확실히 반응이 틀려요. 강사 소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북민이라고 저를 소개하면 다들 집중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것이...강의 담당자들이 저를 보고 오래 강의하려면 여러 TV에 고정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란봉 클럽’ 소개시켜준 언니에게 다시 출연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쪽 작가와 PD가 이제는 안된다고 했대요. 요즘 젊고 이쁜애(탈북민)들이 하도 많으니 나 같은 게 성이 차겠어요? 어린 탈북자들은 TV에 출연해서 돈도 벌고 남자만나 시집도 잘 가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는 안보강의 좀 하려고 공부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힘들게 하는데 재네는 TV에 출연하는 것만 가지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초청되어 엄청난 강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편 같은데 출연하려는 탈북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나 봐요. 방송사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탈북자는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는데 대본에 나온 것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범한 얘기로는 오래 방송할 수 없으니까 점점 자극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평범한 것만 얘기하면 다음에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연자와 방송사가 서로 이용하면서 저렇게 욕먹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미디어를 통한 탈북민의 활동에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탈북민이 미디어 활동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실상과 내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와 있는 동포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수용자의 긍정적인 공감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탈북민을 통한 수용자의 공감은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을 넘어 통일담론을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통로로 자리할 기대도 가능해 보인다.

29) 김명준·주승현, “종편채널의 비즈니스 전략과 북한정보 시장의 공략: ‘탈북민’활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6권 2호(2016), p. 59.

탈북민 \_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 강사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되는 탈북자 강사교육을 수료하고 사회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북한실상 안보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사를 초청하는 기관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느 TV프로그램에 나왔느냐하는 것은 그런 사회 모습에 썩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어요. 물론 문제도 많지만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국사회에 그만큼 북한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옛날과는 다르게 종편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이 TV에서 북한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부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북한을 나쁘게만 비추니까...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측면도 있어요.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비판을 무시 못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출연자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출연하는 탈북자들은 좀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이 좀 통일교육 같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통일교육 강사로 진출을 하면 강의료가 적어서 교육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송활동이나 안보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틀리거든요. 요즘 TV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방송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면 통일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 13> 탈북민 출연 미디어 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명	기획목적	시작년도
종편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토크쇼)	탈북민을 통해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2011
		잘 살아보세 (가상 리얼리티쇼)	통일이란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북한 여성과 남한 남성이 가족을 이뤄 살아가는 체험 버라이어티	2015
	TV조선	모란봉클럽 (토크쇼)	탈북민의 남한정착 경험담을 통해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삶을 알아보는 토크쇼	2015
		남남북녀 (가상 리얼리티쇼)	통일과 결혼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의 결혼 생활을 그려내는 리얼리티쇼	2014

	방송사	프로그램명	기획목적	시작년도
	MBN	한솔밥 (리얼리티쇼)	탈북자민과 연예인의 2박 3일간 리얼 동거를 통해 한솔밥을 해먹으며 웃고 떠들고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리얼예능 사연풀이 쇼	2015.6~ 2015.9 (종영)
지상파	MBC	통일전망대 (시사/교양)	북한을 조망하고 통일을 전망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탈북민 초청	2001
	KBS	남북의 창 (시사/교양)	북한을 조망하는 전문 프로그램에 탈북민 초청	1989
	EBS	딱 좋은 친구들 (토크쇼)	남한과 북한에서 태어난 10대들의 엉뚱발랄한 통일이야기	2015 ~ 2016(종영)
종교방송	CGNTV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토크쇼)	탈북민과 고민을 나누며 남과 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2016
		통일북소리 (토크쇼)	탈북민 초청, 통일준비와 대안을 찾아보는 북한선교 전문 프로그램	2014 ~ 2016(종영)
	극동방송 (라디오)	통일대한민국을 꿈꾸며 (대담)	탈북민을 통해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2016

## 2. 통일안보교육 활동과 현황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온 반공안보교육은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사이에 채택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후, 통일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통일교육이란 공식적인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북한이 우리의 위협세력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민족적 구성원이면서도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강조하는 통일안보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사실 ‘민족주의적 접근’은 통일을 통해 지향하는 민족공동체가 혈연에 기초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sup>30)</sup>

이후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시기를 맞이하였지

30)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2호(2012), p. 59.

만 한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으로 안보교육을 통일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두고 있는 통일교육과는 별개로 안보교육을 상위 영역에 비중을 둔 통일안보교육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통일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일관련 교육은 통일교육의 지침으로 추진되지만 국방부나 안행부, 민주평통,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통일안보교육의 경우 서로 대치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나 관련된 지침서를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 탈북민 \_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과 ‘민족통일협의회(이하:민통)’의 중앙협의회에 강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평통이나 민통에 등록된 탈북강사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예요. 수도권 말고도 지역협의회에도 자기들이 선호하는 강사들이 이미 전부터 있어서 많은 강의를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TV 같은데서 알려진 탈북자들이 너도나도 전문강사로 등록하다보니 그전부터 강의를 해왔던 일반강사들이 설자리는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강의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통일관련 단체들이지만 교육은 안보교육이 위주로 진행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서도 통일교육으로 탈북강사를 부르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실상이나 안보교육인거죠. 그래서 안보교육이 들어오면 제가 (통일)교육원에서 받았던 통일교육을 접목해서 통일안보교육을 진행하는데 통일교육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안보교육을 하다 보면 마치도 자신이 코미디언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북한말을 해보라든지, 북한 여성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나는 등 물을 때면 동물원의 원숭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뻔하고 그것을 해야 하니까 스스로 자괴감에도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보통일교육이라고 하면서 정부기관들 스스로가 안보교육만 선호하면 우리사회의 통일준비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강사들은 통일교육보다는 안보교육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선 통일교육보다 안보교육이 강의료가 더 높거든요. 통일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안보교육은 대부분 북한실상이나 경험담이여서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 같은데서 통일교육의 간판으로 안보교육을 해달라고 할 때는 누군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교육도 좋지만 사실은 통일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생각하면 안보교육이 낫겠지만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통일교육이라고 봅니다. 요즘의 통일교육은 사명 없으면 못합니다.

통일교육과 다르게 안보의식 고취 및 북한 실상 증언을 통한 안보관 확립이라는

추진방향을 가진 통일안보교육에서는 탈북민을 안보강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적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통일보다는 안보가 중심에 두고 진행되는 통일안보교육 현장에서 탈북민은 북한사회의 경험자, 북한체제의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안보관 확립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자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 정부중심의 통일안보교육에 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하면서 탈북민 수요의 저변화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북한실상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에 초청되는 탈북민이 많아졌고 반응이 좋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강의활동도 보장되고 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정권이 바뀌게 되면 통일안보교육의 방향성도 변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탈북민은 안보교육 파트에서 활동하기에 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통일안보교육 활동에서 우려와 불만, 비판과 부작용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철저한 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주민들도 전반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경험하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도 경험하거나 체험하였다고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현상과 위조된 경력으로 활동하는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실상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증언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대결의식과 부정적 인식을 고취하여 북한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부분이다.

몇 해 전 어느 안보교육 현장에서 탈북민 강사가 북한 <고난의 행군>시기의 인육장사에 관한 소문을 마치도 자신이 본 것처럼 청중에게 전달하여 문제가 됐고 수년전에도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이 정부의 통일교육기관에서 북한당국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아 사망시켰다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올해에는 군 신병교육대에서 북한군 장교 출신의 탈북민이 ‘북한이 4·19와 5·18 때 간첩을 납파했다’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여 국방부가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탈북민 강사를 강의에서 배재하는 사건도 있었다.<sup>31)</sup>

---

31) 『뉴시스』, 2016. 3. 15. 기사 참조.

안보교육 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강사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안보교육 대상자는 대부분 성인들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큼니다. 그래서 무조건 북한을 비판만하는 강사도 있고 '90년대 얘기만 하는 강사도 있어요. '90년대가 북한이 워낙 안 좋았으니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북한도 많이 변했는데 그런 것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경력도 속이고 북한실상도 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북한에서 어려웠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쳐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교육 현장도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닥도 좁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가 나오고 또 일부 과장 같은 것으로 찍히면 강사로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안보단체 간부에게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사 목록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는 목록이 있다고 하네요. 학교교육을 가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 중, 하로 강사들을 평가해 놓고 있다고요.

이 같은 문제들이 지속발행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북한의 실상이 전반적으로 알려지고 3만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엘리트나 특수 분야의 종사자들을 통일 안보강의에 활용한,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 일반적이고 경험적인 얘기가 아닌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재생산해야만 꾸준히 초청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머가 있고 안무나 악기 등 재능을 갖춘 젊은 여성일수록 인기와 가치는 활동기간과 비례한다. 뿐만 아니라 안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얘기한다든지, 혹은 북한의 긍정적인 부분이나 북한과 비교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다음 강의 초청은 둘째 치고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로, 생활고라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탈북민이 통일안보강의를 통해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와 유혹이 커지면서 탈북민 서로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넷째로, 통일안보교육에 참여하는 탈북민은 대체로 정부 의존적이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통일안보교육을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경우도 대부분은 정부의 관변적인 경향이 짙어 민·관간의 유기적 관계구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탈북민들의 정부 의존경향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탈북민 \_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사

요즘 워낙 탈북자들이 많고 통일안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은 것 같아요. 아무리 통일안보교육을 하고 싶어도 5~6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이 바닥을 떠나야 해요. 쟁쟁한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점점 재간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이들과 경쟁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안보교육은 옛날 실상보다도 최근 실상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탈북자들을 선호합니다. 특히 탈북남성의 경우는 알려진 엘리트가 아니면 통일안보 강사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리고 젊은 여성들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 특기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내 주변에도 탈북남성 강사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야 직업을 구하기 힘들니까 아무래도 안보강사 쪽을 많이 선호하고 또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7년 정도 이쪽(통일안보교육) 강사로 활동해 왔지만 새로 강사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긴장해 집니다. 지금은 이것도 오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나중을 생각하면서 주말에는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함께 시작했던 탈북 강사들은 거의 이 바닥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탈북자 통일안보 강사들이 너무 많아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통일안보교육은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과 달리 안보와 통일 문제에 대한 기초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탈북민이 참여하다보니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안보교육이 지향하는 안보의식 강화라는 목표에서 탈북민은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성을 고취해야만 강사로서 활동영역과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았고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생산자로 자리하게 된 측면도 있었다.

최근 들어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여를 원하는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중심의 통일안보교육에서 사회단체로 저변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개인 혹은 단체의 자격의 참여뿐만 아니라 강의의 형식과 내용은 물론 악기와 율동 등 재능을 접목한 탈북민 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탈북민 단체의 주요 활동이 통일안보교육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북한식 예술공연과 통일안보교육을 함께 시도하는 탈북민 예술단도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이상의 교육을 마친 탈북민 출신 청년들의 참여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 탈북민 \_ 지역 통일안보교육 강사

탈북자 단체인 0000000단체, 00000단체, 0000000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안보통일교육 강사로 활동시켜준다고 해서 가입도 했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받았지만 그쪽(단체)을 통해서 강의나간 것은 몇 개 안 돼요. 요즘 탈북자 단체가 100개 넘는데 안보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면 승인받기가 쉽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만드는 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없어지는 단체도 많아요. 능력 있는 단체장들이 통일안보교육을 내세워 예산을 받기도 하지만 큰 예산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의 배정도 투명하지도 않고 단체 간부들이나 가족, 아는 사람들부터 배정하다보니 일반 회원들은 단체를 통한 강의는 거의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탈북자 단체의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해도 요새는 한국사회가 받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통일교육 활동을 하면 통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는 현실이라고 봐요. 정부가 통일을 내다보면서 탈북민 단체의 통일 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그런 것이 많이 아쉬워요. 요즘은 탈북자 단체가 예술단을 만들어서 안보강의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북한의 문화예술도 알리고 또 북한실상도 알리는 일이어서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이 통일안보교육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국방부, 법무부, 국정원, 국가보훈처, 교육부, 통일교육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기관), 공무원교육연수원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중 연 4000회 정도의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국방부의 안보강사<sup>32)</sup>는 탈북민에게 있어서 단연 선망 받는 직업으로 꼽히며 전국 50개 교정기관에서 안보강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전국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에 이어 국정원과 교육부, 민주평통, 국가보훈처도 인기 있는 교육기관이다.

32) 『신동아』, 2015. 6월호 참조.

## 탈북민 \_ 지역 통일안보교육 강사

탈북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안보교육 기관은 국방부와 국정원입니다. 국방부는 1회 강사료는 적지만 대신 운이 좋으면 하루에 몰아서 5회 이상의 강의도 할 수 있고 국정원은 강사료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즉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탈북자들 속에서 전망 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월 200만원 받기도 힘든데 국방부 강의는 단 며칠이면 200만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끼리 경쟁도 치열해요. 요즘에는 나이 어리고 미모 있는 여성이 군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국방부 안보강사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탈북자 사회에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돕니다. 그래서 한때는 탈북남성들과 탈북군인 출신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은 남녀를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강의를 잘하는 강사들이 국방부 강의를 오래하기도 하지만 웬만해서 실수만 안 해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정훈장교와의 사적관계 같은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예전에 국방부 안보강사로 활동했던 탈북 여간첩(원정화) 사건이후 기무사가 진행하는 안보강사 선발이 좀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강사를 오래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강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강의 스킬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방부나 국정원은 북한실상과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 같은 것이 위주여서 통일교육은 전혀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북한 문제로 안보환경이 심각한 경우 군부대 안보강의 예산이 늘면서 이쪽 안보강사 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팔아 돈을 번다고 욕하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은 나름대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거짓이나 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담당관계자들도 그냥 눈뜨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강사는 다음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이 통일안보교육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전국의 통일안보 전망대, 통일교육문화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있으며 통일안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사 다수는 진보성향의 민간기관보다는 보수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안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들 중에는 최근에 통일교육이 강화하는 것에 비해 안보교육이 위축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에 통일교육이 강조되면서 마치도 안보교육은 악이고 통일교육은 선이라는 식의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일교육보다 안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일교육 강사들이 안보교육 강사들을 깔보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TV출연자나, 언론에 알려진 탈북자들이 안보교육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이 가는 안보교육은 일회성 교육이거든요. 사실 전문성은 통일교육 강사들보다는 안보교육 강사들이 더 있다고 봅니다. 안보교육 강사는 지역의 경우 10대 1의 경쟁률이고 서울은 20대 1 정도로 치열합니다. 국가보훈처나 민방위 같은 안보교육기관들은 철저하게 전문가를 뽑고 따라서 위촉된 강사들은 전문성과 자격으로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박 2일 정도의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 겸비된 진짜 강사들을 키우고 그래서 안보교육 강사를 일반 강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보교육 교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위촉이 되면 평생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한 번씩 다시 검증받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탈북자들도 이곳 출신의 쟁쟁한 안보전문교수와 함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도 않을뿐더러 안보교육기관의 절반정도는 아예 탈북자를 쓰지도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북자 안보강사들이 북한실상이나 살아온 과정에 대한 간증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 체제 비교뿐만 아니라 안보관련 이론에도 능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8·15해방을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김일성의 신격화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는 8·15해방과 비교하여 북한체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안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해서도 안보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탈북자 안보 강사들이 현장에서 뛰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에서는 예술단도 필요하고 유머를 가지고 웃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보교육의 다양한 강의기법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정치권과 전문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만을 우선시하고 안보교육을 홀대하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대로 북한의 실체를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표 14> 탈북민 참여 대표적 통일안보교육 기관 및 단체

구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국방부	북한실상과 안보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실상과 안보교육	군인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통일시대 시민교실	전국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안보 교육 활동	지역주민
	국정원	북한실상 및 안보교육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실상과 안보교육	국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안보교육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국민
	법무부	북한실상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	전국 50개, 서울·부산 등 6개 소년원을 중심으로 안보교육 실시	교정기관 수용자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원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실상 교육	원내 교육생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통일안보교육	전학교·전학생 대상의 통일안보교육	학생
	교원연수원	통일안보교육	교원의 통일안보교육 지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교사
기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각종 공공연수기관, 민방위, 경찰청 등				
민간기관	자유총연맹	열린안보교실, 남북한 사회체험	북한실상 및 통일안보의식 함양	국민
	홍사단	통일안보아카데미	북한실상,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 다양한 교육 진행	대학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안보교육	전국의 지역협의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안보 교육	국민
	민족통일 협의회	안보 및 통일교육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회원 및 지역주민 대상 안보 및 통일교육	주민, 학생
	대학	북한실상교육	전국의 대학과 대학부설 교육원에서 대학생 대상 안보교육	대학생
기타	종교단체	한국기독교 총연맹, 한국기독교협의회, 원불교 중앙청년회 등		

### 3. 통일교육 활동과 현황

통일교육에 대해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청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33)</sup>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의 정립<sup>34)</sup>을 통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위와 같은 목표는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통해 추진, 시행되며 학교통일교육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교육과 사회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뉘고 사회통일교육은 정부(공공기관 포함)의 사회통일교육과 민간의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은 주로 안보중심의 통일관을, 민간 사회교육기관은 협력, 공존, 평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지향한다.<sup>35)</sup>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는 크게 통일부가 주도하는 학교통일교육과정과 사회통일교육과정, 민주평통이 시행하고 있는 ‘통일시대 시민교실’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지역별 통일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탈북민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현황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다양한 대상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sup>36)</sup>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전문가(강사)를 원하는 대상을 위한 교육과정<sup>37)</sup>도

3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6.

3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운영계획』,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6.

35)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27.

36)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에 1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운영하고 있다.

<표 15> 과정별 통일교육 운영방향과 목표

과정 별	교육 목표	운영연도
통일정책최고과정	각계 CEO를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통일준비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	2016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통일준비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 *중앙·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기업 간부도 포함	=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학교·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 선발 및 강사의 역량 제고	=
학교통일교육과정	교원의 통일교육의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교육인원 확대, 교육과목 개편 및 교육 유인책 마련, 시행	=
사회통일교육과정	통일교육원, 민주평통위원뿐만 아니라 통일준비에 대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각계인사 대상 교육	=
글로벌통일교육과정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국제적지지 기반 확산에 역점을 두어 교육	=

자료 : 2016통일교육 운영계획(통일부 통일교육원) 참고.

그동안 탈북민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대상자로서 탈북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과정」과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에 교육생으로 참여하여 수료 후 전문 강사 자격으로 활동해 왔다. 통일교육 전문과정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sup>37)</sup>으로 2014년까지 총 464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이중 탈북민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88명이 수료했다.

하고 있다. 근거: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1항

37) 통일교육지원법은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1항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일교육 전문기관에서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1항

38) 통일부,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5, p. 205.

<표 16> 탈북민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현황

(단위 : 명)

구분	학교통일 교육강사	사회통일 교육강사	탈북민 강사	계
2010	21	31	-	52
2011	21	37	26	84
2012	21	-	79	100
2013	29	-	21	50
2014	47	31	46	124
2015	38	30	16	54
계	177	129	188	464

자료조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탈북민을 포함한 통일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되며 학교통일과정과 사회통일교육과정, 탈북민 강사교육과정 등을 마친 수료생들은 이후 이수자 연찬반을 통하여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새로운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와 통일교육 ‘중간전달자’로서의 역량 강화교육을 받기도 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별도로 운영해왔던 「북한이탈주민 강사과정」은 2015년부터 학교통일교육과정과 사회통일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탈북민 \_ 통일교육원 지역통일교육센터 강사

군부대 안보교육을 다니다가 통일교육원에서 탈북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보고 추천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이여서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이고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객관적이고, 뭐라고 할까. 이것저것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르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우선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서 북한을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북한을 몰랐고 새롭게 다시 배우는 느낌 이였거든요. 통일도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얘기만 했지 통일을 어떻게 하고 통일을 하면 어떻게 좋은지는 설명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씩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 통일을 해야 하고 왜 북한이 저렇게 보이지는 지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탈북민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교육은 북한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분(한국출신 교육생)들은 북한에 대한 교육을 잘 알아듣는데 오히려 탈북민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안보교육이든 통일교육을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데 통일교육원 교육을 일차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강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강의스킬을 좀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사람들은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사상투쟁이나 생활총화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웅변이나 발표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에는 남한과 같은 창의적인 발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은 발표나 강의 같은 것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큼니다. 통일교육과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강의하는 방법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 활용을 잘 못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표 17>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과 이수자 연찬반 운영

	학교 /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연찬반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li> <li>•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강의기법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선 학교 및 사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북한·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li> <li>• 통일교육 ‘중간전달자’로서의 역량 강화</li> </ul>
교육대상 / 일정	<p><b>&lt;사회통일교육 전문강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가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으로서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li> <li>• 각급 기관, 단체, 군부대 등에서 통일교육 관련 강의활동을 하거나 통일, 안보, 북한 관련 기관 종사경력이 있는 대상자</li> <li>• 2주(5.2~5.13), 25명, 합숙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li> </ul> <p><b>&lt;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대학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심있는 학부생 및 졸업생 등</li> <li>• 학교통일강사로 활동계획 중인 북한이탈주민</li> <li>• 4주(7.4~7.29)50명, 합숙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사회 및 북한이탈주민 전문과정 수료생 대상 75명</li> <li>• 2박3일(제1차 4.4-4.6, 제2차 9.7-9.9, 제3차 11.30~12.2)합숙</li> </ul>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과목</li> <li>□ 전문과목</li> <li>□ 강의훈련 과목</li> <li>□ 참여활동</li> <li>□ 체험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과목</li> <li>□ 전문과목</li> <li>□ 참여활동</li> </ul>

자료 : 2016통일교육 운영계획(통일부 통일교육원) 참고.

## 2) 탈북민 강사의 사회통일교육 참여 현황

통일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의 현황을 보면 탈북민 강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탈북민 강사를 통한 통일교육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학교나 사회교육 현장에서 탈북민 강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의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강사는 한국출신 강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통일교육 과정을 수료한 탈북민 강사는 그밖에도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크게 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통일교육위원의 직함으로 활동, 두 번째가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의 활동, 세 번째로는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한 활동 등이다.

첫 번째, 통일교육위원<sup>39)</sup>은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해왔으며 2014년 위촉된 제19기 통일교육위원 974명은 2015년까지 활동을 마쳤고 2016년 800명의 새로운 통일교육위원이 위촉되어 제20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들은 국내외 지역현장에서 통일교육사업과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통일교육위원에는 통일교육과정을 수료한 탈북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도 위촉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촉된 탈북민은 거주하거나 활동가능한 지역에서 통일교육위원자격과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자격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숫자는 많지 않으며 활동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sup>40)</sup>

둘째로,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전문강사들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2004년부터 정부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통일지원교육법에 근거<sup>41)</sup>하여 2016년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39) 통일교육위원회에 대해 통일교육지원법은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2016년 제20기 새로운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800명 중에 탈북민 출신의 통일교육위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도 소수여서 이들을 명예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신문』, 2016. 8. 18일 참조.

41)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은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두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③“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근거: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은 ①항,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③항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통일센터는 기본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사업은 체험학습, 열린통일강좌, 통일순회강좌, 전문가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공모사업은 지역별 문화행사, 서예대전, 시민대학 등 지역별 자율성과 창의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 각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상근직으로 탈북민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채용하였고 현재 11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탈북민 전문강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표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통일교육센터 상근직 탈북민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명)	14명	13명	13명	9명

자료조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2015년 한해 1856회에 걸쳐 약 39만명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지역통일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42)</sup>

<표 19>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탈북민 전문강사 채용안

순위	모집	내용
1	채용 분야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 전문강사(상근직)
2	응모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등 통일교육(강의) 유경험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통일교육원 주관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3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의거 합격자 선발(개별통지) 나. 2차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강의시연 포함)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개별통지)
4	채용 인원	채용 지역 센터별 각 1명
5	채용 지역 (11개 지역)	o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남부, 충남, 충북, 강원, 전남, 경북, 경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근무 조건 및 임무 등	가. 계약기간 : 채용일 ~ 2016.12.31 * 근무 실적에 따라 계약기간(1년 단위) 연장 가능 나. 근무 형태 : 주 5일 근무(상근) 다. 급여 : 월 약 200만원 * 4대 보험 혜택 있음. 라. 임무 : △초·중·고등학교, 사회단체 등 대상 통일순회강좌 강의 담당 △지역센터 행정 업무 보조 등

자료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42) 통일부,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6, p. 217.

세 번째, 통일교육협의회<sup>43)</sup>를 통한 활동 등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현재 70개의 민간 통일교육 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sup>44)</sup> 탈북민 통일교육 강사는 통일교육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의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협의회 별로 활동하며 대체로 지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통일순회강좌’, ‘통일심포지움 및 세미나’, ‘교사 워크샵’, ‘통일체험학습’ 등을 개최하고 있다.

탈북민 \_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 강사

통일교육원 탈북자 과정을 수료하고 사회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강의가 별로 없어요. 지역별로 통일교육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자기네가 쓰는 강사들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통일교육 기관인데도 거의 안보교육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통일교육원을 수료하고 사회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탈북자들도 이제는 별로 없어요. 강의 할 곳이 없으니...그래도 통일교육원 교육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이나 자료도 도움 되고 무엇보다도 통일부라는 기관 소속의 강사로 활동한다는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강의는 많이 못하지만 연찬반 교육에도 꼭 참가하고 있어요. 연찬반 교육에서는 최근의 실상이나 동향,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 등이 다뤄지는데 그런 것은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면 알아야 하는것이거든요.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된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모든 단체가 통일교육을 진행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단체 성향에 맞는 통일교육 강사들이 따로 있어요.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된 진보단체들도 많은데 진보단체들은 탈북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 강의를 진행했다는 탈북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일부러 초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보단체 통일강의에 탈북자 친구랑 같이 가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육을 듣다가 울면서 뛰쳐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 거죠.

43) 통일교육지원법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중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4) 통일부,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6, p. 220.

<표 20> 2016년 6월말 통일교육협의회 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연구소	대학연구소 (4)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반연구소 (5)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방문제연구소, 북한문제연구협의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평화문제연구소
NGO단체	통일활동 단체 (31)	겨레사랑복지협의회, 경실련통일협회,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뉴라이트부모연합, 민족문화통일회, 평화한국, 민족통일협의회,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한마음통일포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좋은벗들, 선진통일건국연합,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가족문화원,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통일민족문화연구원, 한국통일진흥원,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새천년생명운동본부,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새누리좋은사람들, 국학원, 원주시민연대, 충남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백통일재단, 교육복지연구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교육 단체 (5)	통일교육문화원, 통일교육개발연구원, 통일교육연구원,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선진통일교육센터
	대북지원 단체 (5)	굿네이버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청소년·청년관련 단체(8)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터,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어린이어깨동무,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남북청소년교육진흥원, 세계평화청년연합,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여성관련 단체 (6)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반도평화운동본부
	종교관련 단체 (3)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동학민족통일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통일관련 학회 (3)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통일교육학회, 한국통일철학회
	계: 70개 단체	

자료 : 통일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및 배영애,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제14권 2호(2014), p. 71, 을 참조하여 재작성.

### 3) 탈북민 강사의 학교통일교육 참여 현황

학교통일교육<sup>45)</sup>은 정부가 진행하는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되는 학교통일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탈북민 강사의 학교통일교육 참여는 민주평통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이나 민간 사회통일단체가 진행하는 학교통일교육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일부(통일교육원)가 시행하는 우수 통일교육 강사 지원의 학교통일교육 참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통일 강사로 활동중인 탈북민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명)	25명	25명	29명	34명	30명	29명

자료조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부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통일교육원을 통해 교육되고 선발된 통일강사와 통일교육 콘텐츠를 일선학교들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교육청과 ‘공감 통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등을 체결하여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46)</sup>

45)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한 부분은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와 본법 시행령 제6조의 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를 살펴보면 ①“정부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 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 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 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 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6)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통일부의 2014~2015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008년 35억 원이었던 통일교육 예산이 2016년에는 240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나 통일교육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평화나 화합의 이미지보다는 전쟁과 군사, 그리고 사회갈등이나 혼란의 이미지를 더 크게 떠올리는 것으로 2016년 통일부 국정감사에게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9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실]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탈북민의 경우 학교통일교육 강사보다 사회통일교육 강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통일교육 강사는 통일교육과정 수료 후 상위평가를 받은 교육생 중에서 선발되는 형식이며 활동인원 숫자는 여전히 답보 수준이다. 통일교육원은 2015년 한해에만 전국 1051개 초, 중, 고교에서 학생 5만 7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실시<sup>47)</sup>하였는데 탈북민 강사는 남한출신 강사와 한조가 되어 전반부와 후반부로 시간과 역할을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에서 탈북민 강사는 주로 북한실상이나 안보부분을, 남한출신 강사는 통일의 이해나 통일비전 쪽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관련된 학생들의 호기심과 분위기를 감안하여 파트별로 강의를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체적으로 학교통일교육 강사의 수료인원은 남한출신과 탈북민에 구분 없이 전년과 비슷한 인원이 수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우리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활동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48)</sup>

#### 탈북민 \_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강사

통일교육원 전문강사 과정을 마치고 2년째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통일교육을 하고 싶어도 모두가 학교통일 강사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통일교육 강사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20 ~ 30명 정도 탈북자들이 통일교육원에서 강사교육을 받는데 이 중에서 교육평가가 높은 몇 사람만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쓰고 나머지는 수료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강사는 60 ~ 70명 정도인데, 남한 출신이 39명, 탈북자가 29명 정도입니다. 탈북자 강사가 남한출신 강사보다 현재 인원이 더 적어요. 학교통일교육 강의는 대체로 남출신과 북한 출신이 한조가 되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배정이 강사마다 틀려서 강의가 적에 배정된 강사는 서운하고 본업이 강사인 사람은 그래서 날카로울 때가 많아요. 학교에 가면 탈북자는 무조건 북한실상에 대해 15분정도 강의하고, 다른 남한출신 강사가 통일의 이해를 중심으로 15분정도 강의합니다. 이것이 1교시고, 2교시는 게임을 통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2교시는 학생들에게 게임 설명 10분, 그리고 게임 놀이 30분 정도 하고 교육을 다 마칩니다. 사실 탈북자 강사가 15분 동안 북한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15분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할

47) 통일부,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6, p. 209.

48) 이서예,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2016, p. 57.

수 없다고 봐요. 하다가 마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북한실상 교육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한정되다보니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학교통일교육 강사도 강사별로, 기수별로 강의 배정이 틀립니다. 빠른 기수(1기, 2기)는 대체로 일주일에 5번 정도, 작년엔 나온 기수는 한 달에 한 두건 정도로 강의를 배정하다 보니 공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함께 참여하며 재미있게 알아가는 북한·통일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도입하고 있으며 남한출신의 학교통일강사나, 탈북민 학교통일강사 역시 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통일부는 놀이형 통일수업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 탈북민 \_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강사

일선 학교들에서는 탈북민 출신의 학교통일 강사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원에서 탈북민 강사를 계속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한국출신 강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질문을 거의 안하고 탈북 강사에게만 해요. 그런 점에서는 탈북민 강사들이 한국출신 강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한출신 강사가 탈북민 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출신과 탈북출신이 함께 짝을 지어 교육에 나가야 하는데 탈북출신이 적다보니 남한출신 두 명이 나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남한출신과 북한출신 강사들 사이에는 갈등 같은 것은 별로 없지만 호칭에 있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로 같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강사인데도 남한출신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눈높이 강사’로 소개되고 북한출신은 그냥 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 강사로만 소개됩니다. 누구는 통일교육원 소속처럼, 누구는 소속도 없이 북한에서 온 강사처럼 소개되니까 의견을 제기하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측에서는 통일교육원에서 보내는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그리고 강의 파트도 북출신은 북한부분을, 한국출신은 통일부분으로 구분 짓고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북한출신 강사들도 똑같이 통일교육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통일부분을 더 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트를 구분 지으니까 마치도 메인 강사는 한국출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청진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청진이 항구 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통일교육에서 청진은 철광석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지하자원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일문제로 연계하거든요.

사실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어려움은 탈북민 강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 문제와 통일문제의 복잡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쟁점이나 갈등은 학교통일교육

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의 반공적 시각과 안보적 시각, 그리고 평화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시각이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sup>49)</sup> 여기에 학교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사 및 강사에게서 자신의 가치 준거와 내용의 이해, 강조의 측면에 따라 갈등과 혼란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학교통일교육의 방법은 과거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비교우위적 접근이나, 제한된 정보와 자료, 경험에 의존한 일방적 전달과 같은 교육방식,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남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통한 상호이해, 다양성에 기초한 개방적 토론을 통한 접근과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교육학습,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 지향<sup>50)</sup>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4) 기타 탈북민 강사의 통일교육 참여 현황

그밖에도 탈북민 통일강사는 통일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탈북민과의 대화’ 등 원내 초청강사로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2016년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통일관 및 통일전망대<sup>51)</sup>에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단체는 통일부 허가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에 2000여개의 기관들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이 80여개, 교육연수원이 약 95개, 공공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도 1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sup>52)</sup>되고 있는데 탈북민은 직·간접적으로 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다수 존재함에서 불구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sup>53)</sup> 사회적 지위나 정보, 통일교육 네트워크에 취약한 탈북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9)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p. 409.

50)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 p. 11.

51) 2016년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통일관은 오두산통일전망대(과주시), 서울통일관(서울시), 부산통일관(부산시), 인천통일관(인천시), 광주통일관(광주시), 대전통일관(대전시), 고성통일관(고성군), 양구통일관(양구군), 철원통일관(철원군), 청주통일관(청주시), 충남통일관(공주시), 경남통일관(창원시), 제주통일관(제주도) 등이 있으며 운영주체는 정부와 지자체, 통일관련 단체 등으로 각각 다르다.

52) 배영애,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제14권 2호(2014), p. 68.

53) 박광기,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2012), p. 208.

통일교육을 받거나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려는 탈북민들이 꽤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강사로 활동하는 탈북민들도 있고 상근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강사들도 있지만 사실 한정된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이지 않고 통일교육은 강의료도 많지 않아서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교육과 통일에 있어서 탈북민은 징검다리입니다. 저는 임진강 철교와 같다고 생각해요. 남북이 분단된 것을 하나로 이어주거든요. 통일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보안이나 안전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데 최저급이라도 보장하면 저는 사명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탈북민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몇 명 안 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상근직 자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일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니까 그것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역통일교육센터에 탈북민 강사를 고용하면 통일부에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전라도 같은 곳은 전문강사를 채용하지 않는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이런 지역이 전라도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고 워낙 지역에서 통일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서 제가 학교마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통일교육을 하자고 요청하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답합니다. 탈북민을 선호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통일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학교통일교육 강사도 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기수마다 강의배정이 틀리고 그나마 일 년 내내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로 3월 마지막 주부터 7월 셋째 주,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만 강의를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통일교육을 그만두는 강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육을 전문적으로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교육 차원에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강사는 돈을 들여 양성해 놓고...강사는 강사대로 투자를 하고...그래서 저는 최저급여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통일교육센터 상근직이 22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통일교육전문 강사에게 120만 원 정도만 기본급여로 보장해주면 사명과 보람을 가지고 이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통일교육보다 더 돈을 벌수 있습니다. 탈북민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니까 통일교육은 앞이 안보이고 통일의 전망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탈북민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은 통일의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통일교육을 하는 한국출신은 봤어도 탈북민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들을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통일인재로 준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안보와 통일교육 중에 통일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보교육에는 통일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통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형식은 통일교육이지만 노골적으로 안보교육으로 강의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을 하다가 통일교육을 조금 하면 들어보고 좋아합니다. 학교에 보내는 공문에도 통일교육을 제대로 명시해야 해요. 주변을 보면 강의가 많지 않으니 통일교육을 배정받고도 안보교육이 들어오면 그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사회와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 22> 탈북민 참여 대표적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	전국 각계인사 대상 통일교육	성인
	학교통일교육	학교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청소년
	원내 '탈북민과 대화'	원내 교육생 대상 교육	원내 교육생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지역통일센터 강사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소속 통일교육강사로 활동	성인·청소년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통일시대 시민교실	전국 각계인사 대상 통일교육	성인
	통일골든벨	학교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청소년
통일관 및 통일전망대	통일안보교육	전국 13개 통일관 및 통일전망대 에서 통일교육 진행	성인·청소년

탈북민 참여의 통일교육 과정과 우리사회의 통일교육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며 겪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애로와 고충에 대한 지적이다.

#### 탈북민 \_ 지역 통일안보교육 강사

통일교육 전문강사 반을 수료하고 처음에는 학교통일 눈높이 강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보교육 강사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통일교육을 받을 때는 기대가 컸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의 통일교육 지침이나 우리사회의 통일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우선 통일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전문강사들은 정부가 짜준 매뉴얼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통일교육원에서 나온 강의안에 자신의 소개나 경험을 살짝 첨부했을 뿐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조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강의에서 자기 생각이 10~2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정부의 안보교육기관이 관할하는 안보교육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탈북민도 통일교육 강사인데 왜 북한출신으로만 소개가 되고 북한이나 안보 쪽만 얘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통일교육이라고도 할 수 없죠.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 배운 통일 교육만 새로울 뿐 나중의 교육들은 똑 같은 것도 문제입니다. 뭐 더 배울 것이 없을까 해서 수료자 연찬반과 통일교육위원반, 북한이탈주민 보수교육반 등의 재교육에 가면 교육내용과 교재도 몇 년 전과 거의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변할 텐데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섯 번 교육받으면 다섯 번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강의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으면서 안보교육을 한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불참 시 제약이나 불이익이 너무 큼니다. 일일이 통제하거나 아니면 강사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상근직으로 있는 지역통일 강사도 주변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상근직 강사들 경우 개인적으로는 월급을 받아 좋겠고 학교 쪽에서는 자신들의 예산을 안들이고 지침대로 교육을 받으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비효율적이고... 그냥 생색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통일시대 분위기를 타고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을 분리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보와 통일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탈북민을 통일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것도 결국 안보 부분을 담당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통일교육 중 북한을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안보교육인데, 민방위교육에 가면 안보교육이고 통일부 강의를 하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모순을 깨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통일과 안보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안보교육에서처럼 통일교육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용어가 싫다면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도 얘기 못하면서 강의안에 있는 대로 통일의 필요성만 맹무 새처럼 얘기하는 통일교육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저런 개선이 없다면 탈북민들도 돈 때문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낙인 될 겁니다.

### 제3장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평가와 영향

#### 제1절 시기별 활동평가

##### 1. 시기별 분석

탈북민의 통일교육은 시기별로 크게 반공안보교육시기(1953-1989), 통일안보교육시기(1990-1999), 통일교육시기(2000-현재) 등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공안보교육시기(1953-1989)는 반공, 승공, 멸공이라는 냉전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한의 호전성을 고발하고 자유세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체제경쟁의 도구적·선전적 존재로 탈북민(귀순용사)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반공교육의 일선에 서 있었다. 호칭도 ‘월남귀순자’나 ‘월남귀순용사’로 불리면서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수혜와 혜택을 지원받으며 반공강연과 방송활동에 참여했고 그 내용은 북한체제 비판과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 강조하는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반공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이시기 정부의 후원과 관여 하에 만들어진 탈북민 단체의 목적 및 활동도 반공안보교육의 확대 및 수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나 당시 탈북민 전체를 대변하거나 주도적으로 반공안보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통일안보교육시기(1990-1999)로, 이 시기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미노 붕괴에 따른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와 통일이 함께 강조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면서도 안보위협 대상임을 동시에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2월에는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일교육지원법”이 처음 제정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1990년대 초 무렵 한해 10명 내외로 입국하던 탈북민의 숫자는 1994년에 52명으로 늘어났고 5년만인 1999년에는 148명이 입국하여 국내입국 전체 탈북민의 수는 1000명을 넘어섰으며 통일교육 요구의 증대에 따라 탈북민의 참여도 늘어났으나 탈북민의 대부분 교육은 안보교육에 치중되었고 일회적이며 단기적 교육활동에 국한되었다. 탈북민 단체도 경찰청의 지원을 받는 ‘(사)송의동지회’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지원으로 ‘탈북자동지회’가 출범하여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며 탈북민의 친목도모와 국내 정착지원, 그리고 강연지원 활동 등을 전개했으나 현재까지도 탈북민 사회와 단체에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통일교육시기(2000-현재)이다. 통일교육시기는 2000년에 있었던 남북한의 최초의 정상회담과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진전으로 전면화 되었고 우리사회에 통일지향의 담론들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시기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대북관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나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과 같은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내용과 비중이 강화되었다.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에서 큰 전환점은 2000년 이후로 볼 수 있으며 탈북민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올해까지 총 입국자수는 3만 명을 넘어섰고 다양한 연령, 직업, 지위, 지역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실상 파트나 개인의 경험으로 특화시킨 안보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통일교육 활동을 단체 활동의 목표로 둔 탈북민 단체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민 단체들의 통일교육 활동이 활기를 띠고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 2. 활동별 분석

탈북민은 현재 통일교육 및 통일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①미디어 활동, ②통일안보교육, ③통일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활동과 내용에 있어서 안보중심, 통일과 안보의 동시강조, 통일강조로 분류하여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미디어 활동의 방식과 내용은 탈북민을 통해 북한실상에 접근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과거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며 시청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 집중시키는 효과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기할 것은 방송을 통해 정부와 사회의 통일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탈북민 출연이 갖는 의미 외에도 비즈니스 적이면서도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기제로서 그 이상의 것들이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출연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비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탈북민이 미디어 활동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실상과 내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와 있는 동포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과, 무엇보다도 탈북민을 통한 수용자의 공감은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을 넘어 통일담론을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통로로 자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안보교육에서의 활동과 내용이다. 북한실상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에 초청되는 탈북민이 많아졌고 반응이 좋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강의 활동도 보장되고 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정권이 바뀌게 되면 통일안보교육의 방향성도 변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탈북민은 안보교육 파트에서 활동하기에 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탈북민의 통일안보교육 활동에서 우려와 불만, 비판과 부작용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북한의 실상이 전반적으로 알려지고 3만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엘리트나 특수 분야의 종사자들을 통일안보강의에 활용하는 등의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 일반적이고 경험적인 얘기가 아닌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재생산해야만 꾸준히 초청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에 유머가 있고 안무나 악기 등 재능을 갖춘 젊은 여성일수록 인기와 가치는 활동기간과 비례한다. 뿐만 아니라 안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얘기한다든지, 혹은 북한의 긍정적인 부분이나 북한과 비교한 한국사회

의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다음 강의 초청은 둘째치고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하는 부분이다. 셋째로, 생활고라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탈북민이 통일안보강의를 통해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와 유혹이 커지면서 탈북민 서로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넷째로, 통일안보교육에 참여하는 탈북민은 대체로 정부 의존적인 점이다. 현재까지 통일안보교육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단체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정부의 관변적인 경향이 짙어 민·관간의 유기적 관계구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탈북민들의 정부 의존경향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에서의 활동과 내용이다.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는 크게 통일부가 주도하는 학교통일교육과정과 사회통일교육과정, 민주평통이 시행하고 있는 ‘통일시대 시민교실’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지역별 통일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탈북민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 전문가(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활동하고 있으며 탈북민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88명이 수료했다.

통일교육 과정을 수료한 탈북민 강사는 사회통일교육 현장에는 통일교육위원의 직함으로 활동,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의 활동,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통일교육 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통일부(통일교육원)가 시행하는 우수 통일교육 강사 지원의 학교통일교육 강사(학교 눈높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탈북민 출신의 통일강사는 통일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탈북민과의 대화’ 등 원내 초청강사로 활동하며 2016년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통일관 및 통일전망대에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단체는 통일부 허가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에 2000여개의 기관들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이 80여개, 교육연수원이 약 95개, 공공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도 1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탈북민은 직·간접적으로 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 3. 분석결과의 평가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을 평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탈북민이 참여해 온 통일교육 과정은 분단시대의 정부정책과 궤를 함께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반공안보교육시기에는 반공과 반복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통일안보교육시기에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안보와 통일을 함께 강조해왔다. 그리고 통일교육시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지향적 교육을 추구하였으나 남북문제와 정권의 성격과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세력과, 통일 및 화해협력력을 강조하는 세력에 의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도 진행 중이다. 탈북민은 한국사회의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흐름과 변화에 북한체제의 경험자로서, 통일교육의 긍정적 일원으로서 참여해왔다. 따라서 탈북민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가치를 강화했던 반공·반북교육과, 북한의 실체를 통하여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려 했던 안보교육, 그리고 적극적인 통합을 가치로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는 현재의 통일교육 모두에 참여해온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탈북민의 국내입국 성격과 변화도 통일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이전까지 탈북민의 국내 입국 숫자는 총 607명에 불과했지만 원하던 원치 않든 체제경쟁시대에 국가안보의 이름아래 반공·반북 교육에 동원되어야 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숫자는 늘어났고 현재 3만 명이 이르게 되었다. 반공안보교육도 통일안보교육을 거쳐 통일교육시기로 접어들면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탈북민이 늘어났고 특히 북한에서의 경험과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진행되어 왔다.

주목할 부분은 과거의 정치형 탈북, 경제형 탈북 등으로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탈북유형과 다양한 직업군의 탈북민들이 입국하면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에 실용주의적 접근과 논리의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통일교육에서 탈북민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중 다수가 탈북 여성이며 이는 국내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 중 71%를 차지하고 있는 사정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활동에서의 경제적, 실용적, 수용자적, 중장기적인 입장 모두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반공교육의 시기는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라면 통일교육 시기는 탈북민 간, 통일교육 강사 간, 안보교육과 통일교육 간의 다중적이고도 복합적인 경쟁이 진행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탈북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탈북민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 등으로 탈북민 대부분의 교육은 안보교육에 치중되고 있으며 이는 탈북민간의 경쟁과 교육논리 및 교육환경의 비합리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험과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탈북민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대다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넷째, 3만 명의 탈북민 숫자와 함께 다양한 연령, 직업, 지위, 지역출신의 탈북민들이 많아지면서 통일교육을 활동목표로 삼은 탈북민 단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그 후원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탈북민 단체와 달리 정부와 무관하게 자발적이고 예산 종속적이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교육에 있어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고 있다. 예산의 문제,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성 문제, 통일 및 안보교육 현장에서 경쟁의 문제가 원인으로 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단체 간의 갈등과 개인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난립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통일과 안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방적인 강조에서 탈북민은 이데올로기의 관점, 경제적 관점, 가치 지향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수동적이고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는 한국체제의 우월성을 북한과 비교하여 전달하는 경험자, 피해자로서 반복적이고 편향적으로 특수집단의 논리를 대변하고 만족시키는 존재와 이미지로 오랫동안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쟁을 가치로 삼는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 한국사회의 안보 및 통일 분위기와 맞물려 이를 경제적인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대한 사명 등으로 접근하는 형태이며, 실용주의적 관점은 융합적·변증법적 접근으로 안보 및 통일 교육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통일교육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 노력과 어려움이다. 적대적이고 안보논리에만 치중한 과거의 방식과 달리 적극적 통합과 평화적인 통일을 내세우는 현재의 통일교육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안보와 통일 문제에 대한 모순과 해법, 강사 구성원간의 갈등 등을 차치하더라도 정태적인 콘텐츠와 획일적인 운영방식, 교육논리의 다양성 부재, 현장교육의 경쟁적 구조, 차별과 배제의 투영, 중장기적 비전의 결여 등이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의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일곱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탈북민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이다. 체제경쟁과 안보논리의 시대에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탈북민을 동원한 과거와 달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 탈북민 활용과 전문가로의 양성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단순히 교육현장에서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시적·일시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통일과 통일국가에서의 통합을 바라보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들

의 전문성을 키우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일교육 정책과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제2절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이 한국사회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탈북민의 적응과 정착문제 어느 한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로 저변화 되고 있다. 이를테면 탈북민의 경제적 수준과 취업의 어려움, 정체성과 이념의 갈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국내에서 자녀들의 교육문제, 지역사회와 주민간의 문제, 탈남(脫南)과 북한으로의 재입북 등의 사안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비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와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정부와 탈북민의 수많은 노력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실제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4명 중 1명(25.3%)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난 1년간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특히 탈북민 자녀들의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 만족도는 일반국민보다 7.1% 가량(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대비) 낮게 나타났다.<sup>54)</sup> 이렇듯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것을 우려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민 차별 개선을 위한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통일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탈북민은 여러 지역,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직군들에 진출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 있으며 통일교육 활동은 한국사회의 정착의 범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여의 사명과 목표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일련의 부정적 인식에도 활발한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탈북민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며, 나아가 통합과 통일의 기여자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변화도 과거의 정치나 제도, 영토 등의 외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서 사회, 문화 등 내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54) 그밖에도 탈북민 10명 중 6명은 한국사회에서의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하나재단 2016)됐으며, 2014년 12월 이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탈북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54만 6000원으로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집계된 일반 국민의 229만 7000원보다 75만1000원 낮은(67%)것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있는데<sup>55)</sup> 이러한 흐름은 진정한 통일은 사람의 통일, 사회문화적인 내적인 통합이며 탈북민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과제에 접근한다면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면서 통일 활동을 통한 탈북민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통일교육은 그러한 활동들의 중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탈북민 출신 강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에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작업은 미흡하다. 특히 탈북민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이후 민주주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sup>56)</sup>이지만 현재까지 통일교육에서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는가에 따라 통일의 명암을 가늠해 볼 수 있듯이 이제 탈북민을 통일에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활용하며 세우는가에 따라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넘어 남북한주민의 통합과 상생까지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 1. 긍정적 측면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이 통일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와 북한사회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지하듯, 올해 1월과 9월에 있는 북한의 4·5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 중단은 물론 남북 당국 간, 주민간의 왕래와 협력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다. 이미 남북 사이에는 최소한의 끈마저 모두 끊어지고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상당수의 탈북민은 북한체제의 경험자일 뿐만 아니라 북한 내 가족 및 친지와 연계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전해주는 역할과 북한사회의 이해를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 북한주민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우리의 통일 상대는 북한주민이며 북한주민과의 통합과 상생의 바로미터는 한국에 정착한 3만 명의 탈북민이다.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북한주민과 탈북민의 실상과 새로운 시각을 직접 전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을 준비하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함께 하는 통일을

55) 이서예,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p. 18.

56)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p. 53.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와 사람의 실상에 대한 전달자뿐만 아니라 통일과 통합의 기능자로 적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알뿐만 아니라 통일을 소원하는 탈북민이 통일문제, 통일교육으로 전문가로 자리할 때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힘 있는 호소력으로 전달되며 특히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갈등과 화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문제들로 산적해 있는 탈북민 적응문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탈북민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정착과 적응에 국한되었고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입지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는 부족했다. 그러나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하여 탈북민은 부적응과 수혜자의 이미지를 극복하며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해가는 통합자로,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가로 자리함으로 수동적인 존재에서 적극적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전문가로, 통일과정에서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경험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시장경제의 지식으로 준비된 이들이 통일한반도의 중요한 과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정치교육과 이질성극복 및 동질성 회복, 특히 북한주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해를 전문가로, 친밀한 교육자로 이미지로 북한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2. 부정적 측면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에서 통일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통일 활동과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북한실상에 대한 왜곡 및 과장으로 남한 주민들의 통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미디어와 한국사회의 각종 안보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자극적이고 그릇된 증언과 실상 전달로 남북문제와 남남갈등의 대명사로 규정되기도 했다. 특히 생계만을 위하거나 특정한 집단만을 대변할 때 우리사회의 이분법적 갈등을 강화하고 그만큼 통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통일과 안보교육에 과잉되게 탈북민이 진출한다든지, 혹은 끼리끼리의 활동으로 지나치게 결속한다면 오히려 통일문제의 환기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될 수도 있는 요소이다. 통일전문가로, 통일교육 강사로 탈북민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출신들이 자연

스럽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통일관련 활동에서의 탈북민 끼리의 과도한 경쟁과 탈북민 단체의 지나친 난립은 이미 문제를 드러내며 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 과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통일교육과 통일관련 활동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과 콘텐츠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주장과 단체들이 충돌하거나 적지 않는 긴장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제기된다. 안보교육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과 특성에 기인한 지나친 편향이나, 통일교육 과정에서 이상적인 설정과 개인적 소명에만 집중하는 편중된 시각들이 개인 간, 단체 간의 긴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취지를 벗어나 우리사회에 투영될 수 있는 점이다.

### 제3절 통일교육에서 탈북민의 역할 확대 방안

통일교육에서 탈북민의 역할 확대 방안은 ①전문성을 가진 탈북민 강사 양성과 활용, ②탈북민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 지원, ③통일교육 내실을 통한 부정적 실태 극복, ④통일교육 기관의 개선 방안, ⑤하나원 및 하나센터 등에서 전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 통일교육 실시 등 크게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사회에 입국한 3만 명의 탈북민중 다양한 직업군과 경력을 가진 탈북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형 탈북과는 다른 복합적 유형의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이유의 탈북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북한에서의 직업 및 학력도 무직이나 부양, 고등학교의 졸업 정도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중간계층과 엘리트 탈북민이 늘어나고 특히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에서의 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탈북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일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활동을 장려한다면 통일이후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대학(전문대 포함)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탈북청년들이 2000명을 넘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배운 이들 또한 통일교육 강사로,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탈북민 중 71%달하는 탈북여성 중에 많은 수가 통일교육 현장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전문성 강화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탈북민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실상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통일교육

활동을 진행하려 하는 탈북민 단체의 기초적인 현황 파악부터 지금까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모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콘텐츠의 제공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통일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단 공연과 토크쇼 형식을 빌려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전개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민의 다양한 통일 활동을 장려하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활동과 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에서 활동하는 탈북민이 잘못된 활동과 접근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자료 및 내용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비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활동 일지라도 편견과 비판적 관점보다는 통일의 긍정적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이 돋보이는 탈북민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교육 기관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와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에 탈북민을 활용하고 참여시킨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적지 않으며 균형성, 형평성, 자립성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통일교육 과정의 운영 실태는 새로이 점검하고 강사와 현장중심에서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보인다.

몇 가지를 거론하면 통일교육에 참여한 탈북민 강사의 호칭 및 강의파트의 역할 문제, 한국출신 강사와의 인원 및 동등성 문제, 재교육 콘텐츠의 문제, 이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의 적극적 활용 문제, 강사료 책정 문제 등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다섯째,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전체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이 정착의 의지를 키우며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탈북민 대상의 통일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탈북민의 통일교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바, 하나원과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탈북민 대상의 사회정착교육은 대부분 취업이나 경제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분단의 피해자인 탈북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교육과 강의자료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탈북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일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는 탈북민을 통일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4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제1절 기본방향

탈북민의 통일교육 참여는 통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한국사회에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의 수준을 넘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의 의지와 통일 지향적 비전과 맞닿아 있다. 탈북민 스스로가 국가안보와 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이미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하나원을 비롯하여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에서의 정착교육은 취업과 직업교육에 국한되어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통일교육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취업이 시급한 탈북민이 열의를 가지고 통일교육에 참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탈북민은 통일의 교두보이며, 이들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은 통일의 예행연습이라는 점에서 탈북민 대상으로 단순한 정착교육을 넘어서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sup>57)</sup>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문제를 넘어 통일에 도움 되고 나아가 통일 일군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단의 피해자,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 정착지원의 대상자로서의 관심과 지원을 넘어 통일의 실질적인 참여자로 탈북민과 함께하고 지원하는 것도 정부와 우리사회의 통일준비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통일교육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구성요소<sup>58)</sup>이자 탈북민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통일교육 활동에서 탈북민의 역할은 주변부로서의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통합과 통일의 기여자로 주도적인 위치를 재설정하며 나아가 선도적 역할자로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만약 통일 활동에서 이들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와 여론은 이들을 정착지원의 대상과 한국사회 적응의 주변인으로 인식하고 일련의 부적응과 기타 문제들이 급증할 경우 탈북민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은 강화될 것이다.

57) 통일연구원,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75.

58) 전경환, “통일교육과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제9권 1호 (2014), p. 176.

따라서 탈북민의 한국사회에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에서 아무래도 통일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역할과 인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북한을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강조되어온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탈북민을 통해 남과 북의 장·단점을 정반합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내용체계를 새로이 확립할 뿐만 아니라, 의외로 동질적인 측면이 많음과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라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sup>59)</sup>

특히 통일이라는 분단국가의 과제에서 볼 때 탈북민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 한국사회가 급격히 자원한계와 치열한 경쟁으로 변모하고 수많은 탈북민이 정착할수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많아지고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한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통일 활동에 참여하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며 지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과 관련 활동에서 이들을 통해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제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의식을 촉진하고 통일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 형성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와 정부가 탈북민을 보다 신뢰하고 내세워 남북의 통합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통일교육의 환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에서 탈북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실태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넘어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공동체의 희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외적통일과 내적통일 외에도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대비하는 교육<sup>60)</sup>이라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에도 탈북민의 역할은 크게 부합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와 정부는 그동안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에만 국한되었던 탈북민 강사 활용을 통일 지향적이고 남북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탈북민과 안보, 탈북민과 통일관련 문제를 명료하게 규명하고 새로이 규정하여 통일시대의 실질적 담지자로 통일교육에 참여시키는 과정을 현실에 맞게 추진 할 필요가 있다.

---

59)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p. 222.

60)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p. 63.

## 제2절 실효성 확보 방안

현재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면적인 연계성을 고려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자칫 통일교육 기관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 차원의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교육활동과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각 기관들과 교육대상자 간의 관계 문제, 설정문제, 교육방식 및 프로그램의 문제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탈북민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통일교육 제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강사지원과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 통일교육 활동이 여러 환경과 차원에서 분산되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사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특화된 교육 자료와 강의 지속성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강사양성과 교육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등을 잇는 가교역할로 이에 필요한 정책과 운영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 1. 강사 양성 및 강사 지원 거버넌스 구축

통일지향 사회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 통일교육 활동과 통일 전문가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많은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현장에 탈북민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북한실상에 대한 경험자로 초대받는 상황이며,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통일교육 강사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탈북민 대상의 효율적인 통일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탈북민 양성 과정반을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수강을 요청할 수 있는 있는 자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1)</sup>

61)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1항

뿐만 아니라 교육을 수료한 탈북민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교육 기관들과 함께 하는 지원 업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탈북민은 188명에 달하지만 학교통일 강사로 활동 중인 29명을 제외하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강의활동을 하는 탈북민 강사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통일관련 교육이 정부의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분산되어 제 각각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사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통일교육 강사 지원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교육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공익성을 띤 기관 및 단체들이 통일교육 정책과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일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2. 교육 자료 및 방법의 개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방법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탈북민 출신의 강사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에 편중된 객관적이지 못한 입장 전달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넘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특성에 따라 남북한의 역사나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황을 고려하며 통일교육 콘텐츠와 내용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탈북민 단체 및 개별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탈북민의 통일교육 활동에서 통일교육에 참여하려 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탈북민이 개별적이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대상으로 활동해 왔지만 주도적으로 통일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사회에 환기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육 활동에 탈북민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물론 통일교육 활동에 탈북민 단체의 참여가 효과적이고 적합한지는 검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느 다른 정착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도 주인이라는 의식

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사회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 자체가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하는 통일과 통합을 가능하는 시험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 단체와 통일교육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 4. 통일의 마중물, 통일교육자를 위한 ‘정책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탈북민 통일교육 참여와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는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북한주민들과 통일을 이루고 함께 화합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연스럽게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 한국의 통일관련 활동에서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는 통일교육 활동이다. 통일교육 활동에서의 성과는 다른 통일 분야로의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여자로, 통일의 마중물로의 위치와 위상을 재설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탈북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의 방향제시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며 통일교육자로서 이들을 통일과정에 참여 확대를 강화하는 ‘정책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통일준비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통일과정은 산재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자 갈등과 혼란, 대립과 충돌을 극복해가야 하는 고통의 시기일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통일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북민은 남북한을 동시에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통일문제의 전문가로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을 넘어서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시대의 실무자 및 인력으로 탈북민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강사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발이나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실무자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의 시스템을 구

축하여 통일과 관련된 제반 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분단통일국가의 연수 및 여러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시대의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전문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중에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과 같은 교육과정을 탈북민 대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무엇보다도 통일 역량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탈북민 인재의 발굴과 양성은 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정부와 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 첫걸음은 많은 탈북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일교육 활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 제5장 결 론

해방과 분단 71년을 맞이하는 해에 올해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도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탈북민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될수록 이들의 참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과 탈냉전, 치열한 체제경쟁과 작금의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탈북민이 참여한 통일교육의 변천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과 그 궤를 함께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의 통일교육은 시기별로 반공안보교육시기(1953-1989), 통일안보교육시기(1990-1999), 통일교육시기(2000-현재) 등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공과 반복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된 ‘반공안보교육시기’에 탈북민은 북한의 호전성을 고발하고 자유세계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반공안보교육의 일선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전된 후 통일교육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통일안보교육시기’에 탈북민은 남북의 대치상황에 필요한 안보교육의 현장에서 상징적 존재로 포섭되어 왔다.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통일교육시기’를 맞이했고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숫자도 급격

62)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전문 과정으로는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통일 기획 과정’, ‘평화통일기반 구축과정’ 등이 있다.

히 증가하여 단체 및 기관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탈북민은 늘어나고 있다.

현재 탈북민(단체)의 통일교육과 통일관련 활동을 보면 탈북민은 미디어 관련 분야 활동, 통일안보교육 관련 활동, 통일교육 관련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긍정과 부정, 단기와 중기,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인 활용 등 모두를 포함하며 노정하고 있다. 미디어 활동의 방식과 내용에서는 탈북민을 통해 북한실상에 접근하여 시청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 집중시키는 효과로 사회의 통일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긍정과,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적이면서도 반복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기재라는 부정적 여론과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다. 통일안보교육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으로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에 초청되는 탈북민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인 참여와 중기적인 수요로 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 탈북민 참여는 크게 통일부가 주도하는 학교통일교육과정과 사회통일교육과정, 민주평통이 시행하고 있는 ‘통일시대 시민교실’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지역별 통일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 참여에 대한 적극성과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탈북민 활용의 소극적인 태도로 평가된다.

다시 긍정과 부정, 단기와 중기,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활용의 관점에서 탈북민 통일교육 활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는 통일교육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실상의 구체적 전달과 남북한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역할, 그리고 북한주민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제고와 남북한 통합의 바로미터로서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된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북한실상의 통한 통일의 부정적 인식강화와 왜곡과 과장의 문제, 특정집단의 대변과 생계에 치중된 활동, 그리고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난립 등이 제기된다.

단기와 중기적 문제에서는 미디어활동과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탈북민은 많아지고 있지만 전문성이나 역량 등으로 일회적이고 단기적 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극적이고 재생산적인 활동의 폐해 또한 문제되고 있다.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북한 상황이나, 지속되고 있는 안보현실로 인해 중기적인 수요로 인한 역할의 중요성은 감소되고 있지는 않지만 역할자와 선택지는 불안정한 상태를 담보하고 있다.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활용에서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적지 않는 숫자가 다양한 형태와 방법의 통일안보 교육활동에 참여하려는 적극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와 다양한 직업과 전문성을 가진 탈북민이

많아지면서 한층 열기는 뜨겁다. 그러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와 통일 지향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비전이 결여된 정책의 미비함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태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탈북민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교육에서 탈북민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현재 한국사회에 입국한 3만 명의 탈북민중 다양한 직업군과 경력을 가진 탈북민이 많아지고 가운데 중간계층과 엘리트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을 통일교육 강사로 활용한다면 통일이후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탈북민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실상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통일교육 활동을 진행하려 하는 탈북민 단체의 기초적인 현황 파악부터 지금까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모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콘텐츠의 제공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통일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단 공연과 토크쇼 형식을 빌려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전개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민의 다양한 통일교육과 활동을 장려하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활동과 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에서 활동하는 탈북민이 잘못된 활동과 접근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자료 및 내용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비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일지라도 왜곡과 편견, 비판이 아닌 통일의 긍정적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탈북민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교육 기관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와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에 탈북민을 활용하고 참여시킨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적지 않으며 균형성, 형평성, 자립성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통일교육 과정의 운영 실태는 새로이 점검하고 강사와 현장중심에서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보인다.

몇 가지를 거론하면 통일교육에 참여한 탈북민 강사의 호칭 및 강의파트의 역할 문제, 한국출신 강사와의 인원 및 동등성 문제, 재교육 콘텐츠의 문제, 이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 활용 문제, 강사료 책정 문제 등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다섯째,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전체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이 정착의 의지를 키우며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탈북민 대상의 통일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탈북민의 통일교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바, 하나원과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탈북민 대상의 사회정착교육은 대부분 취업이나 경제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분단의 피해자인 탈북민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교육과 강의자료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탈북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일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는 탈북민을 통일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탈북민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탈북민 강사 양성 및 강사지원 관련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다. 통일지향 사회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 통일교육 활동과 통일 전문가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탈북민 양성 과정을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이수한 탈북민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지원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교육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및 방법의 개발이다. 탈북민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방법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탈북민 출신의 강사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에 편중된 객관적이지 못한 입장 전달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넘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특성에 따라 남북한의 역사나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황을 고려하며 통일교육 콘텐츠와 내용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통일교육을 진행하려 하는 탈북민 단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모색이다. 통일교육에 참여하려 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통일교육 활동에 탈북민 단체가 효과적이고 적합한지는 검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느 다른 정착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도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 우리사회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 자체가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하는 통일과 통합을 가능하는 시험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 단체와 통일교육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넷째, 탈북민에 대한 ‘정책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이다. 현재에 있어 한국의 통일 관련 활동에서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육 활동이다. 통일교육 활동에서의 성과는 다른 통일과정으로의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여자로, 통일의 마중물로의 위치와 위상을 재설정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북한주민들과 통일을 이루고 함께 화합하며 상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연스럽게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탈북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방향제시를 모색하며 탈북민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며 통일교육자로서 이들을 통일과정에 참여 확대를 강화하는 ‘정책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한 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통일과정은 산재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자 갈등과 혼란, 대립과 충돌을 극복해가야 하는 고통의 시기일수도 있다. 탈북민은 남북한을 동시에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통일문제의 전문가로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강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발이나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실무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통일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과 관련된 제반 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분단통일국가의 연수 및 여러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시대의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전문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역량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탈북민 인재의 발굴과 양성은 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정부와 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 첫걸음은 많은 탈북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일교육 활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논문

- 김명준·주승현, “중편채널의 비즈니스 전략과 북한정보 시장의 공략: ‘탈북민’활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6권 2호(2016).
- 박광기,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2012).
- 박순성 외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파주: 한울, 2015.
- 박명규 외 공저,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2.
- 박병철·김형빈, “사회통일교육의 쟁점과 활성화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제14권 2호(2014).
- 방희경·이경미, “중편채널의 북한이미지 생산방식: ‘일상’으로의 전환, 이념적 정향의 고수,” 『한국언론학회』, 제60권 2호(2016).
- 배영애,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제14권 2호(2014).
- 변중현,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통일연구원(2012).
- 전경환, “통일교육과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제9권 1호(2014).
-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2호(2012).
-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 -송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1호(2016).
- 안승대,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새로운 방향성 정립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57 (2014).
-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파주: 양서원, 2007.
- 오원환, “탈북자 정체성의 정치학 -중편에서의 ‘탈북미녀’의 등장과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0권 3호(2016).
- 이서예,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운영계획』, 서울: 통일교육원, 2016.  
통일부,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5.  
통일부,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6.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과거·현재·미래』, 서울: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2. 기타 (언론기사/인터넷 자료)

『신동아』, 『조선일보』, 『경향신문』, 『통일신문』, 『뉴스스』, 『중앙일보』,  
『연합뉴스』